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이정

2020.01 VOL.524

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힘:  
역발상이 불러오는 궁극의 메시지

창의

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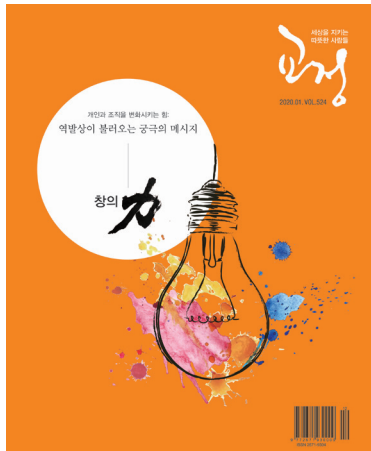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12

# 교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2020년을 맞아 월간 <교정>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교정인의 힘, '力'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교정인들이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도록 다양한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1월호의 테마는 '창의력'입니다. 일상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순간을 자주 만나게 되지요. 보다 나은 선택을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능력 중 하나일 것입니다.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여코너 신청과 독자 의견 송부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정 2020년 1월호(통권 524호) 64권 1호  
[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http://www.facebook.com/mojcor)  
유튜브 주소 [www.youtube.com/교도소24시](http://www.youtube.com/교도소24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음을 잇다

04  
취임사

06  
신년사

08  
인트로

10  
테마  
창의적 발상을 위한 습관

12  
피플  
창의력은 나의 엔진, 배우 박호산

16  
포커스  
창의력 향상을 위한 문화 콘텐츠



## 희망을 짓다

20  
소원을 말해봐  
우리 생애 첫 스카이다이빙

24  
교정이 쓴다  
교도관도 누군가의 아빠다

## 내일을 열다

28  
즐거운 씬표  
2020년 새해,  
겨울 바다 사용법

32  
힐링타임  
창의의 시간

34  
심리학 열전  
나를 지키는 진짜 자존감

36  
보라미, 보드미와 함께  
우리 동네에 교정시설이 들어온  
대!

38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정직 공무원의 고민상담소

40  
맛남의 교정  
요리초보도 간편하게, 딱만듯국

42  
헬시라이프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  
기억해야 할 요소들



44  
열린 교정  
울산구치소 보라미  
준법교실 및 시설참관

48  
전국 교정인 자랑  
히말라야를 건다

50  
희망의 백일장  
용서를 생각합니다

52  
교정리포트  
교정의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上)

58  
NEWS  
본부소식 & 일선기관 소식

65  
REVIEW







#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법무부의 새 출발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80일 법무 공백이 있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법무 가족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관 직무대행으로 책임 있게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김오수 차관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 법무 가족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검정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준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倅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저는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여러분과 함께 드높이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행정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합니다.

## 첫째, '법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부당한 권력의 행사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그 의무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종과 신념, 계층과 신분 등에 의해서 주권자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소속 기관의 구성원 모두는 스스로 인권옹호관이 된다는 각오로 각자의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둘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행정력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해 갈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속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생활속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음주운전,

성희롱과 성폭력 등 생활밀접형 범죄 역시 엄단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민생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 셋째, '법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의 근간입니다.

법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정은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사회로 나아가려면 공명정대한 법치와 법치에 대한 강한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위에 권력은 군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받는 법치국가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최상의 법무서비스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도록 교정·교화, 범죄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시민민주주의를 이뤘던 우리 국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법무서비스의 질이 높아질수록 인권과 민생, 법치의 3대 원칙도 보다 투명하고 정의를 구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변화의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 특권인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조직내부 세진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 3.

법무부장관 **추미애**





##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 2020년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교정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친애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거창구치소 공사 재개로 해묵은 난제를 풀었고, 부산·태백시와 교정시설 이전과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민들의 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통합을 위한 전기(轉機)를 마련하였으며, 수용자 미성년자

녀 지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증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정의 역할을 확장하고, 취업조건부 가석방 도입 등 가석방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포용적 교정행정도 적극 실천하였습니다. 한편 기관 및 기구신설, 근무체계 개선, 외곽경비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성폭력사범 및 범죄적 정신질환자의 심리치료를 강화하여 우리 교정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용관리시스템에 AI(인공지능)를 접목하여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는 2IC형 스마트 교정시설 조성을 위한 단초도 마련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여러 대외 요건으로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교정가족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기에 새해도 희망의

기회는 우리에게 빛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애써 주신 교정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정은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많은 성과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고 교정의 비전 달성을 위해 우리 모두 일신하여 계획을 세우고 각오를 다져 볼까 합니다.

**첫째, 우리가 행복할 때 국민, 수용자 모두가 행복으로 화답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트랑 베르즐리는 '내가 행복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책에서 "내가 행복할 때 모든 것이 화답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우리가 행복해야 수용자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행복의 필요조건은 국민과 구성원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조직근간과 조직 성장의 자양분인 조직문화입니다. 본부는 인력증원, 조직정비, 복지향상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교정정책과 운영방향의 중심축에 직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두어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 근간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무차별적이고 악성 진화하는 '화풀이식 적대문화'가 잔존하는지 살펴서 일소(一掃)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품격 있고 행복한 조직문화로 채워 나갈 때, 국민과 수용자 모두가 행복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가치가 선진교정의 척도입니다.** 수용자에게 사회질서와 법규 준수의 준엄함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국민으로 안착시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변함없는 우리의 소임이자 교정의 존재 이유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 있는 정책시행과 능동적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상황에 부합하도록 보조를 맞추고,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용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교정의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일류 교정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조직이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목표를 위해 일치단결해 나간다.'는 동심동덕은 서경(書經)에 나오는 말로 넓게는 조직의 공정함과 청렴함 그리고 하나 뭉을 뜻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조직, 부조리 없고 신뢰받는 교도관'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어렵게 쌓아놓은 조직의 명예를 일순간 실추시키는 그간의 선례를 교훈 삼아 조직과 자기관리에 철자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정책으로 형성하고 조직발전의 추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고 교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인 의식으로 일체가 되어 교정의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듭시다.

**끝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는 하나의 규범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혁신은 필수입니다. 공직사회는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벗어던지고 빠른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정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조직의 경계를 허물어 수평으로 통로를 확장하고, 구성원 간 가치의 차이를 소속감과 조직애로 결집하여 간극을 메워 조직문화의 틀을 새로이 하고, 취약한 부분은 면밀히 보강하고 어떤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교정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함으로써 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여러 지혜를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틈없이 완벽한 계획도 여러분의 동참과 노력 없이는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일에 "준비된 정신"을 갖고 서로가 마음을 열고 활발히 "소통"한다면 어떠한 난제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풍요로움과 번영의 해 경자년(庚子年), 여러분 모두 풍요와 번영으로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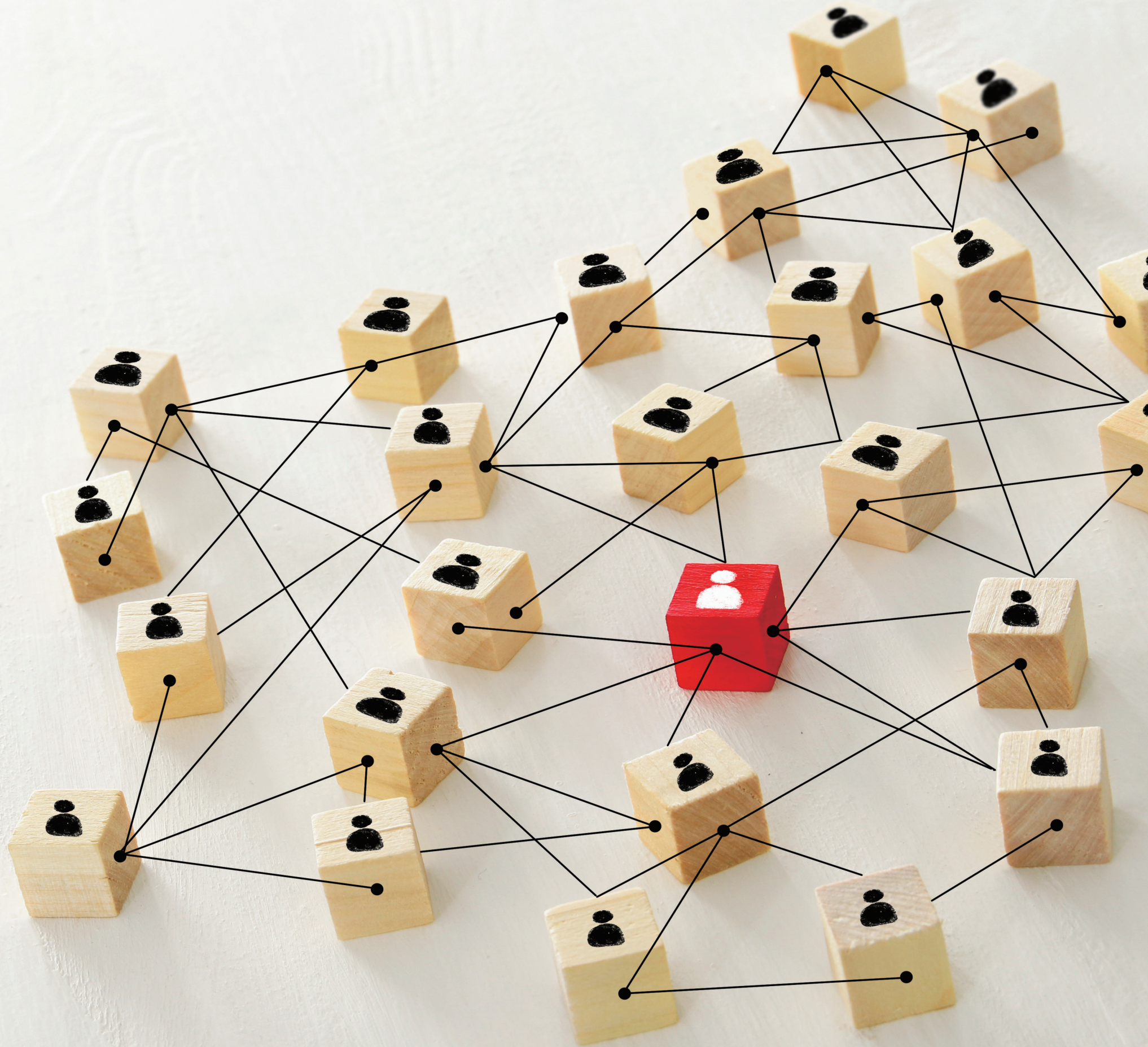
2020. 1. 2.

교정본부장 **최강주**



## “창의력은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목받는 사람에게 그 비결을 물으면, 대체로 이와 유사한 대답을 합니다. 전구가 ‘반짝’하고 켜지듯, 없던 좋은 생각이 불쑥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다양한 각도로 고민한 것들이 잘 융합되었을 때, 비로소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나요?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월간 <교정>이 준비한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 창의적 발상을 위한 습관 모든 직장인의 화두,

창의적 인재란 어떤 사람일까? 단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많은 이들이 창의성은 어린 시절의 교육과 환경을 통해 길러진다고 알고 있다. 혹자는 다 커버린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행히 그렇지 않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상의 창의성은 창의적 인재들의 공통된 습관을 몸에 익히고 따라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필요할까?

# 창의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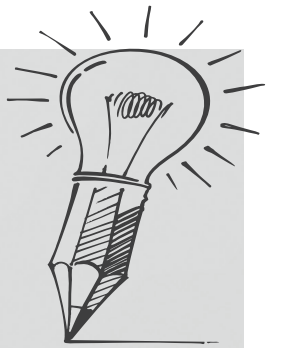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창조와 혁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왜일까? 해답은 최근 세계 경제 화두인 '저성장시대'와 '4차산업혁명'이라는 두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미 세계는 저성장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언급된 4차산업혁명은 각종 산업의 경계를 허물며 제조업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도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화두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AI가 중심이 되어 기업과 사회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견하는 상황이다. 단순 직무 혹은 숙련된 기술이 아닌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첫 번째, 바로 관찰을 통한 통찰의 힘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문제의 해답을 복잡하거나 새로운 기술에서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불편함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관찰의 능력이다. 효율적인 관찰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기록이 가능한 도구를 지참하고 의심이 가는 것에 대해 인터뷰를 하자.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되어 직접 경험해 보고, 느낀 점을 철저하게 기록해 보는 것이다.

두 번째, 남의 것을 베끼고 창조하는 최고의 창조적 모방가가 되어야 한다. 월마트의 창업가 샘 월튼은 "내가 한 일의 대부분은 남이 한 일을 모방한 것이다"라고 했고, 스티브 잡스는 "우리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을 부끄러워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항상 최고의 것을 모방하고, 변형하고, 자기 아이디어와 결합해서 재창조를 시도하는 습관을 익혀 보자.

세 번째,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가 우리의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질문은 우리 뇌의 앞쪽 부위인 전두엽을 자극하는데, 이곳은 창의적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위다. 특히 'Why'나 'How'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전두엽을 지속적으로 자극시켜 뇌를 더욱

창의적으로 만든다고 한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5번만 'Why'라는 질문을 던져 보자. 문제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를 더욱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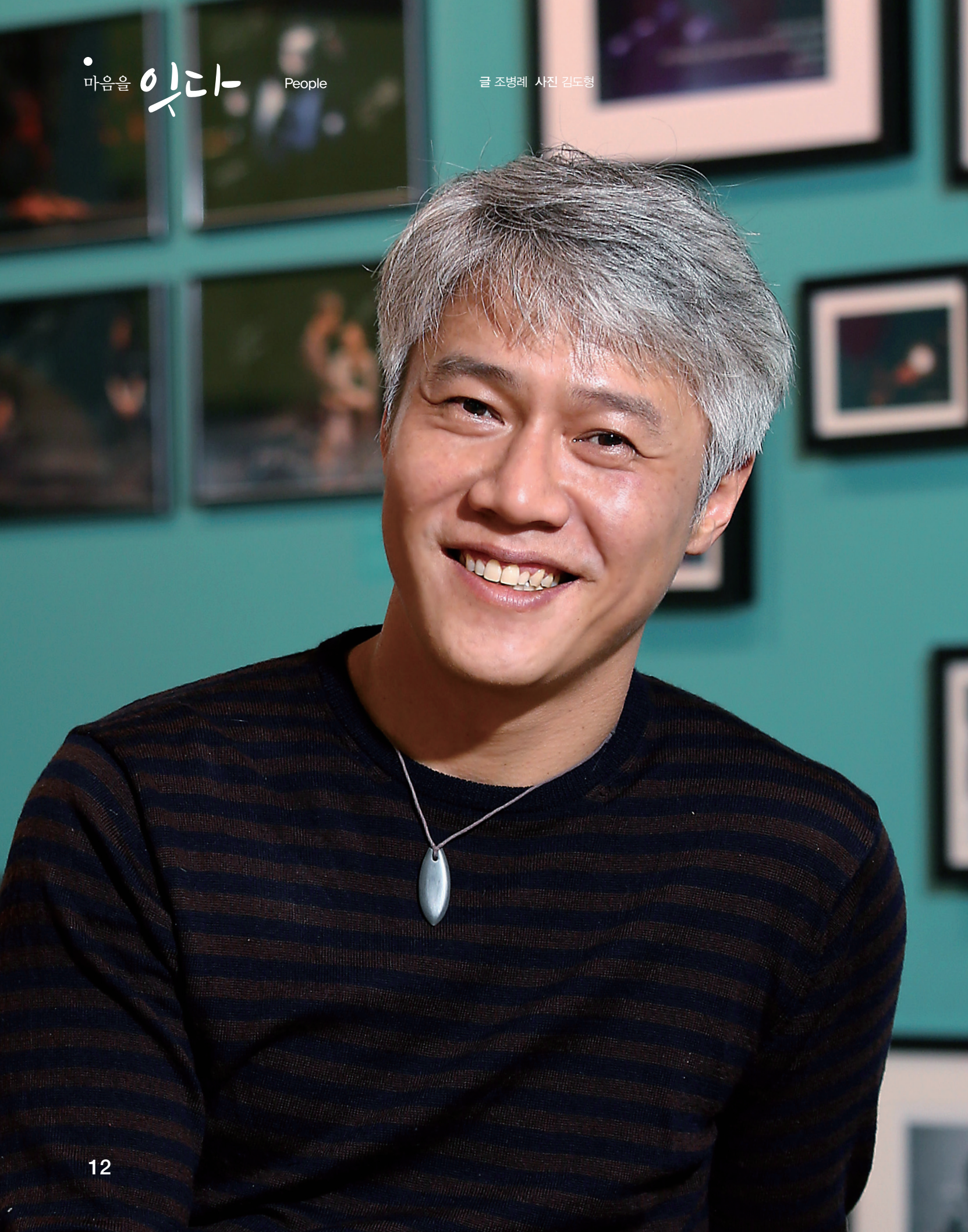


네 번째, 서로 전혀 다른 영역을 연결시켜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스탠퍼드대 마틴 루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비즈니스에서 더 혁신적이었다고 한다. 집단 지성의 시대에 혼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습관을 갖춰보도록 하자.

다섯째, 항상 자신에게 자극을 주거나 영감이 되는 주변 일들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정리하라는 것이다. 역사상 천재로 불렸던 인물 301명의 일상 습관을 조사한 미국의 심리학자 캐서린 콕스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성격도 다르고 특성도 다른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종이에 기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기록하는 행위는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과정이며,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성향을 갖게 해준다.

창의성은 그리 어려운 영역이 아니다. 특히 일상에서나 직장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은 더욱 그렇다. 이제부터 우리의 근무 환경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수용자들을 관찰하고, 이들의 불편함을 찾아보자. 기존의 고정행정 업무 및 교육과 직업훈련 같은 반복적인 일들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고, 다른 영역의 사례와 연결시켜 보자.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AI로 대체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를 더욱 가치 있는 인재로 거듭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늘 수용자들의 고정교화에 최선을 다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에게 창의성은 더욱 필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늦은연령,  
남배우에게겐 엔진이죠”

### 배우 박호산

작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직업.  
불특정 다수의 관객에 내면의 울림을 주기 위해, 주어진 대본 안에서 배우는 꽤 많은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020년 첫 번째 인터뷰이는 배우 박호산이다.

#### 매일 무대가 짜릿한 사람

요즘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뮤지컬 '빅피쉬'가 매일같이 막을 올리고 있다. 배우 박호산은 주연 '에드워드' 역할을 맡아 극의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장면에서 등장해 관객들을 만난다. 동명의 책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에서 에드워드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자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해 들려준다. 마녀를 만나고 인어, 거인과 친구가 됐다는 등의 황홀한 이야기로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다. 아들이자 기자인 월은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 지금은 그를 믿지 못하고 진저리를 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그의 '진짜' 인생을 묻기로 하고 귀 기울인다. 즐거리며 등장인물부터 평범하지 않다. 온갖 상상력으로 버무려진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무대는 낮설고 환상적인 연출로 채워졌다. 그 중심이나 마찬가지로 박호산은 스스로 "무대 체질 배우"라고 말한다. "에드워드는 저와 닮은 면이 많아요.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전 언제나 무대에 서는 게 짜릿해요." 공연 기간 내내 한 공간에서 똑같은 대사를 읊지만 관객에 앉은 사람은 매번 다른 관객이다.

거기서 풍겨 나오는 매일 다른 공기가 그를 짜릿하게 한다. 그는 여타 인터뷰에서 "제작진의 손을 거쳐 방송되는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무대에서는 배우가 편집권을 가진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연에서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강약을 조절하며 관객을 웃기고 울리면서 극장의 분위기를 휘어잡는다. "객석의 공기를 지휘하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그 무대 위를 떠올리며 빙그레 웃는 얼굴은 자신의 일에 대한 애착이 진심임을 알려주는 듯하다.

#### 캐릭터를 디자인하다

박호산은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문래동 카이스트' 역할로 등장했기에 <교정> 독자들은 그가 더 반갑게 느껴질 것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2상6방의 주요 캐릭터 중 하나를 연기해 큰 사랑을 받았다. 1996년 데뷔한 이후로 형사 연기를 해본 적은 있어도 수용자 역할을, 게다가 실제 교도소처럼 안에서는 열 수 없는 촬영 세트에서 연기해본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소품부터 설정까지 생소한 환경투성이었다고. 평소 접할 일 없는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순가락, 밥상, 휴지통 등은 흥미로웠지만 그 느낌은 곧 불편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죄지으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준 작품은 처음입니다. 하하”

그의 캐릭터가 주목받은 요소 중 하나는 혀 짧은 발음이라는 설정이었다. 전달력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위험 부담은 박호산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기에 해소될 수 있었다. 말투는 캐릭터의 매력으로 작용했다. 제작진이 이 역할을 어느 배우에게 맡길지 고민한 긴 시간이 무색하게 그는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냈다. “어느 수준의 발음으로 설정할지 연습도 고민도 많이 했죠. 이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대본은 표준어로 표기돼 있을 뿐이니까요.” 순식간에 ‘문래동 카이스트’의 발음으로 말을 뱉는 그의 순발력에 놀랐다. “극 중 캐릭터 대부분을 오디션 했는데 PD님이 선뜻 결정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역할을 달라, 그런 캐릭터를 체화시키는 일에는 자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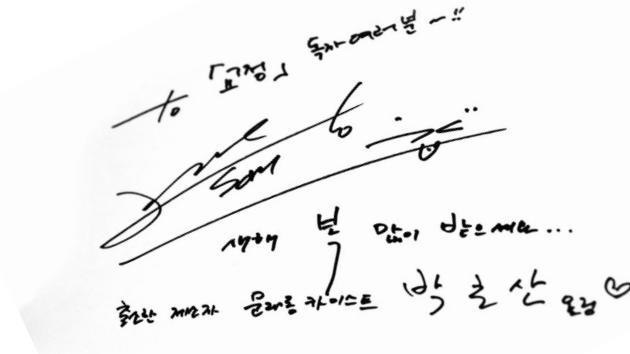


평소 접할 일 없는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순가락, 밥상, 휴지통 등은 흥미로웠지만 그 느낌은 곧 불편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죄지으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준 작품은 처음입니다. 하하”



“엔진이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단번에 이해되는 비유다.  
배우가 배우로서 계속 기능하게 하는 힘.  
지치지 않고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내는 힘.

고요.” 그제야 정해진 캐릭터에 대한 설정을 알고 그는 이해했다.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무대 경험이 충분한 연극배우 출신인 사람이 필요했을 거라는 걸. 그게 바로 자신이라는 걸. 그는 캐릭터에 대한 독특한 설정도 기가 막혔지만 ‘수용 생활’을 드라마로 구현해낸 신원호 PD의 창의력과 패기에 감탄했다며 말했다. “범죄 미화에 대한 우려가 컸어요. 세심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욕먹기 쉬운 소재인 반면 누구도 손대지 못한 무척 기발한 소재기도 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극 후반부에서 그는 아들에게 장기 이식을 하며 진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갑작스런 이감 후에는 더 등장하지 않았다.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해본 적 있느냐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문래동 카이스트는 어디에 가서도 똑같이 철없는 모습으로 살 거예요.”



**삶에 녹아든 창의적인 생각들**

최근 일상생활 속에서 그가 감탄한 창의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얼마 전 구입한 차량의 오토 파일럿 기능이 바로 그가 매번 감탄하는 아이디어라고 한다. “복잡한 서울 시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낸 건 정말 놀라운 창의력이라고 생각해요.”

배우에게 창의력이란 뭘까? “엔진이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단번에 이해되는 비유다. 배우가 배우로서 계속 기능하게 하는 힘. 지치지 않고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내는 힘. 그래서 대중에게 사랑받고 그 사랑을 즐거움으로 돌려주는 힘. 물건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져 버리듯 배우에게 창의력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하는 일일 것이다.

그는 서핑이 취미다. 파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이 좋다고 했다. 매 순간 다른 모양으로 다가오는 파도 중 내가 올라탈 것은 어느 것인지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머릿속에서 지워진다.

본업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발 아래서 파도를 느낀다. “공연이 흘러가는 내내 파도를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나 영화의 ‘큐’와 ‘컷’ 없이 없죠. 오직 공연의 흐름에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내면을 비우고 무대로 돌아와 채운다. 비우는 시간이 있어야 엔진에 기름칠도 할 수 있다.

그 엔진을 열심히 돌리며 에드워드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마지막 막으로 교정 공무원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부탁했다.

“보람 있지만 슬프고 아프기도 하면서 희망적인 직업이 교도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칠고 힘든 면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 누군가에게 희망을 찾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직업을 갖고 계시죠. 언제나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창의력을 향상시킬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주위를 둘러보면 창의력을 자극할 온갖 콘텐츠들이 난무하고 있다. 눈치채지 못한 것은 다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 분야의 주목할 만한 창의적인 콘텐츠를 소개한다.



### STEM형 인재, 분야를 넘나드는 창의적 인재

당신은 STEM형 인재인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머리글자를 따 탄생한 STEM은 네 분야를 융합한 통합 교육을 뜻한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상으로 STEM형 인재가 주목받고 있다.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한 인재를 이렇게 표현한다.

교육부는 몇 해 전부터 STEM에 A(Arts), 예술적 요소를 추가해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성, 감성 등을 깨울 수 있는 STEAM 교육을 추진 중이다. 매년 STEAM 교육 선도학교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학습 시간이 길고 학업성취도가 높음에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 교육 방식을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일상에서 닥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놓고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취감을 높이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도전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STEAM은 자연스럽게 발휘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또한 발전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며 차별화된 인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라지는 직업이 생기는 반면 무척 다양한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이다. 새로운 가치는 누군가가 만들면 탄생할 수 있다.

EDU



### 창의력에 공감을 더하다, 펭수 전성시대

“펭하!” 이 인사말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까? 남극에서 온 EBS 최초의 연습생 펭수의 유행어 중 하나다. 남극 ‘펭’씨에 빼어날 수(秀)를 써 이름이 펭수라는 이 펭귄의 나이는 열 살, 키는 210cm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는 구독자가 180만 명이 이른다. “뽀로로 선배님을 보고 꿈을 키워 한국까지 헤엄쳐 왔다”며 한국에서의 목표가 ‘BIS만큼 성장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펭수 다이어리는 예약 판매 개시 10분 만에 약 1,000부가 팔리고 카카오톡에서는 그의 이모티콘이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펭수는 어느 때고 어디서고 거침없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마주했을 때도 “여기 대빵 어딴어요?”라고 묻고 EBS 김명중 사장 이름을 언급하는, ‘근거없이 자신감 있는’ 태도에 수많은 ‘을’들이 환호하고 공감한다. 편견에서 자유롭고 상대를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그의 건강한 화법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전에 없던 캐릭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EBS 자이언트 펭TV 연출 이슬에나 PD의 창의력 덕분이다. 그는 펭수를 기획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성별이 두드러지지 않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는 존재’로 표현하도록 했다. 전에 없던 캐릭터의 탄생은 모두에게 건전하고 밝은 즐거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Youtube





##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쉬엄쉬엄 넘겨볼 것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예술은 의외로 단순할 때가 많다. 덴마크의 예술가 후스크밋나븐의 작품도 그렇다. 그의 작품에 필요한 도구는 오직 종이와 검은 펜 뿐. A4용지 위에 그의 상상을 펼쳐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포물선을 그리며 튀어오르는 종이 농구공, 종이 과자 부스러기를 떨어트리며 걷는 헨젤과 그레텔, 구겨진 반쪽과 다림질로 반듯하게 퍼진 남은 종이 반쪽.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겪을 법한 상황을 종이 위에 그려냈지만 구기고 찢고 그림자를 이용해 만든 그것은 2D도 3D도 아닌 새로운 어떤 세계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이인간>(북레시피, 2017)라는 제목으로 그의 작품집이 출간돼 있다. 평소 눈 여겨 보지 않았던 상황들을 이토록 재치 있게 표현하는 창의력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무언가 다른 것을 눈에 담고 싶을 때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좋다.

작가는 1990년대 건물 벽화 작업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명인 후스크밋나븐(HuskMitNavn)은 덴마크어로 '내 이름을 기억해줘라'라는 뜻이 있다. 이름이 아닌 이름을 기억해달라는 것도 남다르다. 그의 더 많은 작품을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huskmitnavn1을 검색해보면 된다.



## 순간의 이미지를 영화로 만들다, 봉준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한국영화 최초로 칸 황금종려상과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까지 수상했다. 이 작품은 미국의 방송사 HBO에서 드라마화 논의까지 되고 있다.

그는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옥자' 등의 작품을 통해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그만의 장르를 만든 감독으로 평가받는다. 봉 감독의 페르소나로 꼽히는 배우 송강호는 과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괴물' 때는 시나리오도 있지 않았다. 오로지 봉 감독의 황당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이야기를 듣고 출연을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어 발전시켜 영화를 만든다는 것. '옥자'는 봉 감독이 서울 이수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고가도로 아래 그림자를 보고 떠올린 동물에 대한 상상에서 시작됐고 '괴물'은 잠실대교 교각에서 우연히 본 광경에서 영감을 얻어 출발했다. 그는 이미지를 묵혀 두었다가 새로운 상상력으로 조금씩 살을 붙인다. "경험의 폭이라는 것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 혼자서 가만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봉 감독은 말한다. 여기에 무언가 연결시킬 만한 요소를 찾아나서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괴물'은 그가 상상한 이미지에 2000년 주한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맥팔랜드 사건'을 연결해 탄생했다. 무엇을 연결시킬지는 자유다. 뭐든 창조하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우리 생애 첫 스카이다이빙

# 무중력 세계에서 두둥실!

두근두근, 도전은 언제나 설레는 법. 무중력 세상을 비행하는 스카이다이빙이라면 설렘과 흥분은 배가 된다. 남다른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이들이 새해를 맞아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에 나섰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짜릿한 모험으로 심신을 단련한 현장 속으로.



## 짜릿한 도전에 나서다

“와, 바람의 최대 시속이 360km라고요?”

생애 처음으로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장을 찾은 네 사람. 윈드 터널이라 불리는 커다란 원통 안, 바닥에서 거세게 부는 바람을 이용해 두둥실 떠오르는 다이버를 보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마치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보는 것 같은 기분에 눈을 땔 수 없다. 바람을 가르며 위로 올라야 한다니,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설레는 맘이 더 앞서는지 모두 들뜬 표정들이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구치소 총무과 안성호 교사와 변무관 교사 그리고 보안과 김정필 교사와 김학산 교도다.

이들이 도전할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과 달리 지름 4.5m의 원통형 터널에서 바람을 이용해 맨몸으로 공중을 오르내리는 체험이다. 실제 다이빙과는 달리 아래에서 위로 날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직접 와서 보니 더 기대됩니다. 네 사람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 초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서로 자주 만날 시간이 없게 되었어요. 이색 체험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안에 흔쾌히 함께해준 동료들이 즐거

웠으면 합니다.”

안성호 교사의 제안에 함께한 세 사람 또한 설레긴 마찬가지. 오늘을 극복의 기회로 삼고 싶다는 김학산 교도는 “평소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스카이다이빙 도전을 통해 극복하려고요. 살짝 겁이 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적인 취미를 즐기다 역동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서 기쁘다는 김정필 교사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을 새롭게 환기하고 싶다는 변무관 교사까지 모두 한 마음이다. 이제 본격적인 체험에 나서는 길, 네 사람의 발걸음에 경쾌한 리듬이 실린다.

## 비행 준비 완료! 자유롭게 훨훨

“몸에 힘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힘을 너무 주면 몸에 무리가 가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에서는 수신호를 유의해서 봐주세요.”

체험에 앞서 안전 수칙을 익힌 후 다이빙 슈트와 헬멧 등의 장비를 착용했다. 마치 우주복 같은 슈트가 어색하기도 하지만 한껏 포즈를 취하고 선 네 사람. 서로의 색다른 모습에 웃음이 터진다. 평소 일터에서도 끈끈한 동료애를 다져온 이들답게 친분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바람에 몸을 맡기니 두둥실 떠오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하고 싶은걸요!”

너끈히 감지된다. 따로 또 같이, 같은 부서나 야근부에서 함께하며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준 사이이다.

“우리 모두 동료들을 보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 임용되었을 때 선배는 후배를 이끌어주고, 후배는 선배를 잘 따르며 적응할 수 있었지요. 업무에 대한 고민이나 고충을 함께 나누며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것 자체로 큰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제 드디어 윈드 터널 안으로 들어서는 네 사람. “와 바람 세기 봐요!” “살짝 긴장되는데요?” 이제야 실감 나는지 모두의 목소리가 세 옥타브쯤 올라가 있다.

비행은 전문가와 1:1로 짝을 이뤄 진행된다. 가장 먼저 김학산 교도가 나서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거대한 그물로 이뤄진 바다 아래서 바람이 불자 아찔하다. 기본자세를 익힌 후, 연습하기를 수차례.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기 시작한다. 생각처럼 쉽지 않지만 붓 떠오르는 느낌이 신기하기만 하다. 이제 상승기류를 타고 높이 날아오를 차례. 전문가와 함께 10m 높이로 쪽 오른다. 고소공포증은 온데간데없이 바람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긴다. 맨 몸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자 짜릿한 쾌감이 밀려든다. 5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두 볼은 별장게 달아올랐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바람에 몸을 맡기니 두둥실 떠오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하고 싶은걸요!”

#### 삶의 고도를 높이는 도전의 가치

도전은 계속된다. 때로는 평온하게, 때로는 짜릿하게. 안성호 교사와 김정필 교사가 한 마리의 새처럼 무중력 세상을 유영하며 오롯이 자유를 만끽한다. 360도 회전이라는 고난도 기술까지 섭렵하며 서로의 비행에 박수를 보내준다. 마지막 주자 변무관 교사까지, 도전은 ‘무사 전원 성공’이라는 뿌듯한 성적표를 받았다. 모두 거친 숨을 몰아쉬지만 끝까지 해냈다는 으쓱함에 얼굴이 밝다. 스윽, 흐르는 땀을 닦는 변무관 교사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을 많이 접했거든요. 꼭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체험 문의를 하곤 했는데 예약이 쉽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좋은 기회를 통해 동료들과 소원을 성취한 기분이에요”라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는다. 체험을 마친 소감을



김정필 교사      안성호 교사

“열정적으로 살아갈 에너지도 충전했고요! 도전정신과 자신감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무관 교사      김학산 교도

풀어놓으며 같은 감정을 공유한 네 사람. 도전을 이끈 안성호 교사에게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사실일이 아닌 이색적인 장소에서 함께 즐기니 동료애가 더운 돈독해진 것 같아요. 이번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긴장하지 말고 용기를 내자’는 마음가짐을 되새길 수 있었어요. 주변 교도관들에게 ‘소원을 말해봐’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보기를 적극 추천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극한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순간에 몰입하며 성취감을 누린 네 사람, 여럿이 모여 함께 흘리는 땀방울이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김정필 교사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넘쳤다.

“오늘 이 기분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다양한 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살아갈 에너지도 충전했고요! 도전정신과 자신감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좌표는 더 높게, 열정 온도는 더 뜨겁게. 네 사람에게 이날의 비행은 일상의 고도를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았다. 짜릿한 모험으로 새해를 맞이한 이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낸다.



# 교도관도 누군가의 아빠다

## 5세 아이들과의 맛있는 간식시간

월간 <교정>이 교정공무원과 가족의 돈독한 시간을 위해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자녀의 학급에 찾아가 맛있는 간식을 선물하는 것! 내 아이의 친구들에게 교정공무원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도 만들 수 있다. 2020년의 첫 번째 주인공은 대전교도소 장광우 교사와 5세 아들 태양이다.

아빠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대전교도소 장광우 교사의 아들 태양이는 어린이집만 가면 친구들에게 교도관 아빠를 자랑하기 바쁘다. 친구들도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주기를 바라지만, 교도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 고개를 가웃하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하다는 태양이를 위해 아빠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다. 교도관이 하는 일을 설명해주고 간식도 나눠주기 위해 아들이 다니는 새롭꿈어린이집을 찾은 것이다. 아들에게만큼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빠로 남고 싶다는 장광우 교사의 깜짝 이벤트 현장을 소개한다.

### 교도관이 뭐예요?

“와~곰돌이다!” 장광우 교사가 교정부부의 마스크트 보라미 탈을 쓰고 아들 태양이가 있는 교실로 들어서자 5세 새롭반 아이들이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바라봤다. 장광우 교사는 아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앞으로 나가 절도 있게 경례를 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보기에도 보라미 캐릭터가 귀여운지 손을 흔들며 환영해준다. 아이들의 환호에 장 교사는 더욱 힘을 얻은 듯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태양이와 친구들이 귀여운 보라미에 푹 빠져 종알종알 대자







“아이들 앞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무척 긴장되는데요. 태양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무척 뿌듯해요.”

순식간에 주변이 어수선했다. “짜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장광우 교사가 탈을 벗고 얼굴을 드러내자 순식간에 교실 안이 조용해진다. 어리둥절한 친구들 속에 앉아 있던 태양이가 아빠의 얼굴을 알아보곤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이들에게 얼굴을 드러낸 장광우 교사는 다시 한번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여러분 저는 태양이 아빠예요. 저의 직업은 교도관인데요. 우리 친구들 교도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아이들이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이야기하느라 다시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어느새 아이 다루기가 익숙해진 장광우 교사가 커다란 목소리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교도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경찰관은 무슨 일을 하죠?” “나쁜 사람을 잡는 사람”이라는 대답이 우렁차게 들려온다. “맞아요. 경찰관은 나쁜 사람들을 잡아요. 그럼 나쁜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하죠?” 이어진 질문에 아이들은 “감옥에 가둬요”라며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장광우 교사는 씩씩하고 늠름한 아이들의 목소리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아저씨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감옥에 오면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또 나쁜 마음을 반성하고 착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장 교사가 5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자, 아이들은 대단하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친구들이 아빠를 우러러보며 멋있다고 이야기하자 태양이의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갔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무척 긴장되는데요. 태양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무척 뿌듯해요.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교도관**

장광우 교사의 설명이 끝나자, 궁금한 것이 많은지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나쁜 사람들을 왜 감옥에 가둬요?” “감



옥을 부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섯 살 아이다운 천진난만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 장광우 교사는 작고 사소한 질문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고 아이들이 알기 쉽게 정성껏 대답을 해주었다. 평소 아빠의 직업인 교도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태양이가 대신 대답을 해주고 싶은지 몸이 들쭉들쭉했다. “나쁜 사람들이 계속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반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 같은 용감하고 튼튼한 교도관이 지키고 있으니 절대 감옥을 부수고 나올 수 없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겠죠?” 장광우 교사의 대답에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아빠가 어린이집에 와서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 교도관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잘 알게 돼서 기뻐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태양이가 앞으로 더욱 더 아빠바라기가 될 것 같다.

**아빠가 쓴다**

아이들의 궁금증이 모두 풀리자 장광우 교사는 준비한 간식을 나눠줬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빵과 우유를 넉넉히 준비해 풍성한 간식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어떤 간식이 좋을까 고민하

며 고른 빵과 우유를 보고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자 장광우 교사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태양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아이들이 우렁차게 감사 인사를 하자, 장광우 교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태양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 보니까 너무 대견하네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맛있는 간식시간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아빠와 태양이,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함께 사진을 찍으며 오늘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기념했다. 새롭고 어린이집 원장은 “태양이 아버님이 이런 이벤트를 제안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무척 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각 가정에 공지했더니 부모님들도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양이 아버님 덕분에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된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장광우 교사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 시간이 장 교사와 태양이에게 가슴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기대해본다.



# 2020년 새해, 겨울 바다 사용법

강원도 동해·삼척



꼭 1월 1일이 아니어도 좋다. 새해를 맞이하는 어느 무렵, 바다와 마주 서보라. 한없이 넓고 큰 바다는 무엇이든 받아줄 듯하다. 묵은해의 좋지 않았던 감정과 기억을 바다에 모두 토해낸다. 새해에 바라는 크고 작은 소망도 바다에 모두 전한다. 그렇게 한참을 바다와 마주한다. 그 사이, 탁 트인 바다 풍경에 가슴이 뚫린다. 차가운 바닷바람에 머리는 시원해진다. 비워내고 맑아진 마음과 머릿속에 좋은 기운이 스며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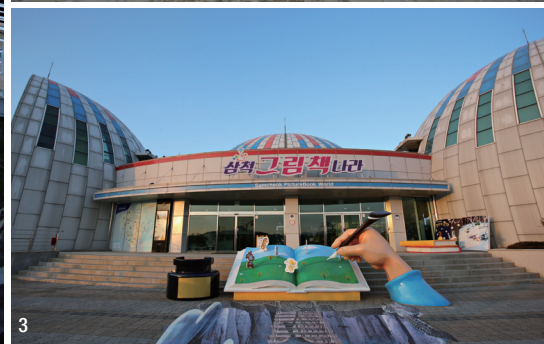
### 새해 첫 바다는 여기, 추암 촛대바위

이왕이면 새해맞이 첫 바다 여행은 '동해물'이면 좋겠다. 애국가 첫 소절의 동해물, 그 중에도 애국가 영상에 등장하던 추암 촛대바위를 2020년 첫 바다로 짰다. 강원도 동해시 추암해수욕장 옆 해안에 우뚝 선 촛대바위는 우리나라 대표 해맞이 명소로 손꼽힌다. 떠오르는 해가 촛대바위 꼭대기에 걸리는 순간이 하이 라이트다. 마치 촛대에 불을 밝힌 듯한 모습이 연상된다. 대자연이 불을 밝힌 촛불을 앞에 두고 소원을 빌어본다. 웬지 소원이 진짜 이뤄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촛대바위에는 전설이 서려 있다. 이 마을에 살던 한 남자가 첩을 얻으면서 본처와 첩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 이에 하늘이 노해 벼락을 내렸고 홀로 남은 남자가 촛대바위 형상이 됐다고 전한다. 촛대바위 주변으로 거북바위, 부부바위, 코끼리바위 등 여러 형상의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아름다운 풍치를 보는 눈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모양이다. 조선 시대 대표 화가 김홍도 역시 촛대바위를 위시한 추암의 풍경을 한 폭의 그림으로 옮겼다. 그림은 김홍도가 정조의 어명으로 그린 <금강사군첩>에 담겼다. 촛대바위가 내다보이는 위치에 이에 대한 안내판이 있다. 안내판 속 그림과 실제 풍경이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







- ① 추암의 새로운 명물, 출렁다리
- ② 추암해변 풍경
- ③ 이사부사자공원 내 삼척그림책나라
- ④ 삼척해변의 인증맞은 놀이터
- ⑤ 이국적인 분위기의 쏘비치 삼척

다. 수백 년간 인간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동안에도 바다는 같은 모습으로 묵직하게 한 자리를 지켜냈으리라. 경외감이 밀려온다. 촛대바위 전망 코스는 산책로를 따라 한 바퀴 가볍게 돌기 좋은 순환형이다. 촛대바위를 감상한 후 내려오는 길에도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이 일대 바위군은 능파대(凌波臺)라고도 불린다. 조선 시대에 한명회가 이곳의 절경에 감동해 붙인 이름으로 '미인의 걸음걸이'를 의미한다. 능파대 끝자락에 정자 하나가 다소곳하게 자리한다. 삼척 십씨 시조인 심동로가 고려 때 건립한 것으로 알려진 북평 해암정(강원도유형문화재 63호)이다. 지금의 해암정은 조선 시대에 중수한 것으로 앞면 3칸, 옆면 2칸에 팔작지붕을 인 형태다.

#### 추암의 새로운 즐길 거리, 출렁다리

예전에는 대부분 해암정을 끝으로 촛대바위 여행이 마무리됐지만 2019년 6월 출렁다리가 개장하면서 달라졌다. 출렁다리는 길이 72m, 폭 2.5m 규모로 촛대바위 인근 해상에 설치됐다. 바닥 일부 구간은 바다가 보이도록 뚫려 있다. 출렁출렁, 아슬아슬 짜릿한 재미를 맛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지만 무엇보다 전망이 압권이다. 출렁다리에 서면 능파대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바다에 피어오른 석림(石林)은 신비로움 그 자체다. 출렁다리를 다시 건너 되돌아 내려가거나 산책로로 직진해 추

암조각공원을 거쳐 내려갈 수 있다. 조각공원에는 일출, 파도 소리, 새벽 등 이 공간과 어울리는 주제의 조형물이 군데군데 놓여 있다. 동해의 일출을 조형화한 '일출, 가슴에 담다' 작품이 눈에 띈다. 이 작품 앞에는 'LOVELY 동해'라는 글자 조형물이 있어 포토존으로도 인기다.

조각공원을 빠져나와 추암해변에서 잠시 쉬어가자. 고운 백사장 가진 아담한 해변이다. 화려한 굴곡의 능파대 구간과는 완전히 다른 잔잔한 매력을 자랑한다. 정면으로 바라보면 망망대해, 왼쪽으로는 위엄찬 바위군, 오른쪽으로는 파란 지붕이 인상적인 쏘비치 삼척이 내다보인다. 작은 해변이 여러 풍경을 담아 낸다.

#### 동해에서 걸어서 삼척까지

추암해변은 동해시 최남단이다. 삼척시 증산해변과 맞닿는다. 두 곳을 잇는 텍 산책로 안내판의 동해시, 삼척시 표시가 아니라면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할 정도다. 바닥에 표시된 줄 하나가 두 도시의 경계를 나타낼 뿐이다. 땅에는 경계가 있을지언정 바다에는 어떤 경계도 없다. 푸르른 바닷물은 동해시 추암해변과 삼척시 증산해변을 자유롭게 흘러 다닌다. 사람도 해변과 산책로를 따라 두 곳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니 즐겁다.

추암해변에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이내 이사부사자공원과 증산해변에 이른다. 이사부사자공원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에 나오는 그 이사부의 이름을 따다. 이사부가 나무로 만든 사자를 배에 싣고 가서 우산국(현재의 울릉도)을 복속시킨 역사를 기반으로 공원을 조성했다. 야외에는 나무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사자가 있고 건물 안에는 독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라이브 영상이 나온다. 이사부사자공원 내 메인 건물은 삼척그림책나라로 꾸며 다채로운 그림책 전시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체험을 진행 중이다. 멋진 바다 전망을 감상하며 책 읽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사부사자공원 아래 증산해변은 호젓하다. 해변 뒤로는 아담한 마을이 있어 운치를 더한다. 단층 짜리 가옥이 웅기종기 모인 풍경이 정겹다. 야트막한 담장은 옛이야기를 담은 벽화로 채웠다. 해변 다른 한쪽으로는 예스러운 마을 분위기와 상반되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파란색 지붕을 인 하얀 건물이 바다와 마주서 있다. 그리스 산토리니를 모티브로 조성한 쏘비치 삼척이다. 바다가 내다보이는 워터파크와 레스토랑과 카페, 도계유리공예 체험장 등 꼭 투숙하지 않아도 즐길 만한 시설이 다양하다. 쏘비치 삼척의 한쪽은 증산해변, 다른 한쪽은 삼척해변과 이어진다. 삼척해변은 앞서 만난 추암해변이나 증산해변보다는 규모가 크다. 널찍한 백사장을 따라 텍 산책로, 휴게 정자, 그네 등

이 있다. 백사장 가운데 산토리니와 모래성 느낌으로 만든 놀이터가 포인트가 되어준다. 주변에는 카페와 음식점도 많다. 강원도 동해시 추암 촛대바위에서 시작한 새해 첫 바다 여행은 출렁다리, 조각공원, 추암해변을 거쳐 삼척시 소재 이사부사자공원, 증산해변, 쏘비치 삼척, 삼척해변까지 이어졌다. 걸어서 이 모든 곳을 돌아볼 수 있으니 좋다. 하루에 추암해변, 증산해변, 삼척해변, 동해의 3개 해변에서 바다와 마주한다. 바다에 새해 다짐을 뿌려놓는다. '물도 기억이 있다'는 영화 <겨울왕국2>의 대사처럼 바다는 우리가 던져놓은 새해의 마음을 기억할 지도 모른다. 2020년이 마무리되는 때 다시 이 바다를 찾아 지금의 마음을 떠올려 봐야겠다고 계획해본다.

#### info

#### <여행 정보>



추암과 삼척해변을 특별하게 여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다열차를 이용하는 것. 바다열차는 아름다운 동해안을 따라 53km 구간을 달리는 관광열차로 강릉-정동진-묵호-동해-추암-삼척해변을 오간다. 좌석이 바다 방향으로 배치되고 창도 커 달리는 내내 시원한 풍광을 눈에 담기 좋다. 추암역에 내리면 촛대바위 일대를 걸어서 편하게 돌아볼 수 있다.





## 창의의 시간

향긋한 차 한 잔이 품은 힘

모두가 힐링타임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문화를 향유하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곱씹어보며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명상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가장 쉬운 힐링타임의 한 가지 방법이다. 2020년 <교정>에서는 <봄 말고 그림> 저자 임지영 아트워드 대표의 칼럼 연재를 통해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소개하며 따뜻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차를 마신다. 차를 마시는 가만한 마음이 좋다. 물이 차가 되는 시간이 좋다.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팽주(차 우리는 사람)는 능숙한 솜씨로 차를 우린다. 보기 좋은 널따란 차판에 차구들이 조로록, 어른들의 소꿉 같기도 하다. 한 손에 딱 쥐어지는 귀티 나는 자사호, 한 번에 호록 마시기 좋은 작은 잔. 향과 맛이 날아가기 전에 마시라고 그렇다 한다. 보이차의 유래와 과정, 역사를 드문드문 들으며 차를 마신다. 보이차는 계속 변한다고 한다. 맛과 향이 계속 변화를 겪으며 안정기가 될 때까지는 성장한다는 것. 그러므로 **맛없는 보이차라고 제쳐두지 말고 보관을 잘해두면 내 영혼을 적시는 근사한 차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후발효라고 했다.** 세월이라고 했다. 차를 진짜 차로 만들고 나를 진짜 나로 만드는 것은, 처음의 거칠고 떨떠름한 맛이 세월과 함께 깊어지고 농익어가듯 우리의 삶도 그리되길 바란다. 둥글고 순한 차처럼 살게 되기를 바란다. 마음이 순하고 다정해지는 차가 좋을 뿐 나는 차에 대해선 문외한이다. 그런데 이 시간이 참으로 대단하다. 차를 마시는 것 외에 별 것 없는 이 시간이, 삶의 속도로 치자면 거의 멈춰있는 이 시간이 엄청난 힘을 응축하고 있다. 정중동, 가만한 가운데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생각 중심에 창의가 따리를 튼다.

이토록 향그러운 차를 우리는 사람은 최영진 사진작가다. 그를 처음 본 것은 10년 전쯤이다. 그때도 그의 시선은 멀고 넓은 곳을 향하고 있었고 작고 세심한 것도 놓치지 않았다. 하늘이거나 바다거나 큰 세계를 담으면서도 그 안의 작은 생명 하나에 더욱 천착했다. 사진에서 이야기가 들렸고 이야기에서 삶이 보였다. 그의 사진은 모든 걸 껴안고 있다. 새만금의 죽어가는 새마저 그저 자연의 일부인 양 무심하게 찍었는데 그 처연한 평온함이 가슴을 파고든다. 누군가 죽어 나가도 노을은 아름답고 우리는 자기 앞의 생을 살아내야 한다. “나는 잘 몰라요.” 그는 입버릇처럼 말한다. 사진에 대해 물어도, 차에 대해 물어도 느릿하고 빙그르르한 웃음으로 머리를 긁적 한다. 하지만 그만큼 지혜롭고 사유 깊은 작가를 본 일이 없다. 차에 대해서도 많이 마셔온 만큼 꼭 그만큼 이야기해주고 또 나도 잘 몰라요 시치미를 떼다. 그 마음을 알 것 같다. 우리는 잘 모른다. **몰라서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느끼고 생각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삶은 창의 된다. 아주 작은 생각의 발현, 그 생각의 차이에서 생이 창의되는 것이다.**

그의 이번 전시는 하늘 가득 솟구치는 새들이다. 머리 위를 새까맣게 덮었을 새들을 고스란히 프레임 안으로 날게 했다. 그들은 자유롭다. 뜨겁다. 퍼덕이는 비상도 까마득한 추락도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이 장관을 담으려고 오래오래 기다리고 끈질기게 인내했을 그는 무엇을 담고 싶었던 것일까. 작품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오롯이 향유하는 사람의 몫이다.

새들의 소요와 차의 고요 속에서 다시 생을 마신다. 역동하는 맑은 기운이 훅 끼친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삶이 예술이 되는 시간이다. 우리는 거창하고 멋있는 순간을 좇으며 살아가다. 화려하고 근사한 일상을 동경하기도 한다. 하지만 삶은 새들의 날갯짓처럼 고단하고 어려운 일투성이라 멋진 순간이란 것은 허허롭고 요원한 일이다. 그저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나를 잠시 멈추고 들여다보는 시간, 이런 가만한 시간이 진짜 나를 만드는 시간이고 근사한 순간이다. 바로 창의의 시간이다.



나를 지키는 진짜 자존감을 찾아서

# 상처만 주는 가짜 자존감은 그만



“전 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환자들이 있다.  
언제부터 ‘자존감’이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었을까.  
최근 유행하는 마음챙김이나  
수용전념치료 등 여러 치료  
방법들을 보면, 자존감과  
관련된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나만의  
힘으로 나를 괴롭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용기를  
원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 홀로 자존감 높이는 어렵다

자존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언이 난무한다. 안타깝게도 오히려 자존감을 훼손하는 조언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함정이 타인과 나를 무작정 멀어지게만 만드는 조언이다. 타인이 나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까? 그렇다. 게다가 그 영향은 절대적이다.  
혼자 밤에 심리서를 여러 권 읽고, 그 책에 나온 대로 나의 장점과 단점을 써보고, 괜한 죄책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관계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타인을 멀리하고 나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좋은 타인을 만들어야 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자기 자존감의 내용을 채워주는 좋은 사람들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멘토’라고 한다. 요즘은 남발되어 식상한 감이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끊임없이 ‘멘토’를 필요로 한다. 흔히 멘토를 ‘성공의 모델’로 생각하지만 멘토는 나에게 ‘존중’과 ‘객관’의 거울을 동시에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고 동시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선을 던져주는 사람이다.

그런 멘토가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 부모, 선생님, 직장 상사, 학교 선배나 친구 등등을 봐도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분야를 쪼개서 자존감의 멘토를 의식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외부 고객을 상대하는 방식이 좋아 보인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알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 멘토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책 속의 멘토도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멘토는 어린 시절만이 아니라 어른에게도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어른이 되고 직접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 관계에 신경을 쓰느라 나의 자존감을 높여줄 사람을 찾는 일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나 홀로 독야청청한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아니다.

멘토를 ‘성공의 모델’로 생각하지만 멘토는  
나에게 ‘존중’과 ‘객관’의 거울을 동시에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고 동시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선을 던져주는 사람이다.



## 행동, 실행력을 높일 때 자존감이 올라간다

자존감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중 하나는 자존감을 주로 감정의 문제로 다룰 때 생긴다. 감정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법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하여 자존감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일 때가 많다. ‘아, 기분이 나쁘다. 그렇지만 이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닌 거지?’ 이렇게 그 반응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조절하는 과정에 따라, 자존감은 나쁜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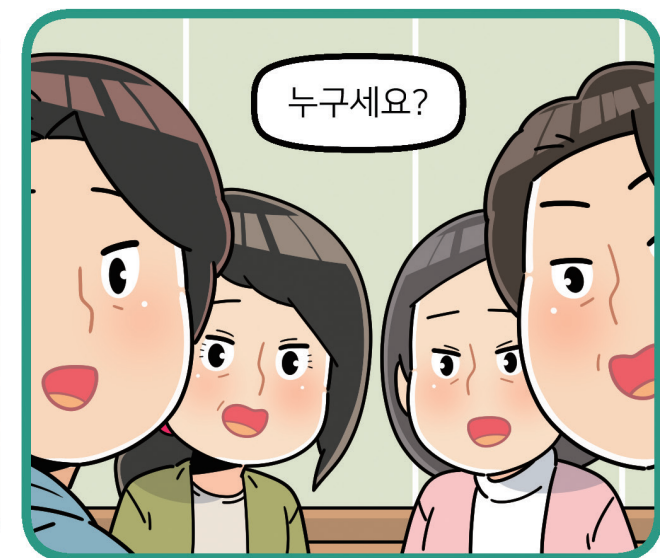
자존감을 높이려면 자기조절력이 높아져야 한다. 자기조절력은 행동과 관련이 높다. 많은 심리서를 보면 행동력을 강조하는 측면이 약하고 주로 감정 다스리기에 주목한다. 실행의 힘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자존의 힘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행의 힘이 약하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행을 안 하거나 혹은 반드시 실패했을 때의 상황을 미리 가정하려고 한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자신을 저평가하는 이들은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행동을 주저한다. 반면 성공과 인정을 중요시하는 이들은 ‘내가 실패했을 때 받게 될 저평가’에 대한 반발로 행동하지 않으려 한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이들 중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 자신은 항상 잘하는 사람, 맞는 사람,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왔는데 그런 인정을 낮추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실행력이 높아지면 자기 조절력이 커진다. 잘 못 하는 운동도 자꾸 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 잡는 방법을 익히듯이, 실행력이 높아지면 실행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모으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그 에너지를 모으는 방법이 바로 자기 조절력이다.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높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다. 내향적인 사람도 충분히 실행력이 높아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다.



# 우리 동네에 교정 시설이 들어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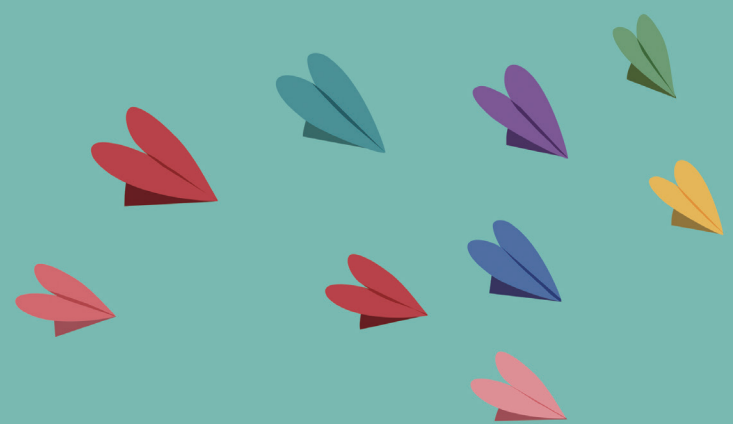




# "외로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 교정직 공무원의 고민상담소

교정직 공무원으로 살면서 느낀 어려움, 스트레스가 있다면 익명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사소한 고민이라도 월간 <교정>이 해결에 보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따뜻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정직 공무원이 되어 낯선 지방에 발령받으신지 n년차 된, 30대 중반 남성 독자입니다. 몇 년간 노력 끝에 근무지역에도 적응하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관계에 욕심이 납니다. 저와 잘 맞는 이성을 만나고 가족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위치나 지역 특성상 이성을 만나기 어려워 답답합니다.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데, 주위 사람들은 노력을 해봐라, 외모나 스타일 관리를 해보면 어떠냐, 같은 말 끊임 하셔서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간혹 소개를 받더라도 물리적 거리 때문에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런 고민이 계속되어서인지 요즘은 일상이 지루하기만 하네요. 마음이라도 편히 가질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From. 심심한 O교사

### 심심한 O교사님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이야기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다양한 일을 하는 프리랜서인데, 여행작가로도 활동합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 칼럼을 쓰고,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고, 강연하는 등 여행 경험에서 우러먹을 것은 모조리 우러먹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알차고 꼼꼼하게 여행해야 할 텐데, 이게 항상 딜레마입니다.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이글이글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은 뻑뻑한 출장이나 다름없어져, 정말이지 재미없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만든 콘텐츠 역시 지루하고요. 그래서, 여행지에선 마음을 최대한 내려놓습니다. 넓은 시야로 주위를 둘러보고, 이 시간이 어떻게 저를 관통해서 빠져나가는지 느끼려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제 여행에서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저만의 서사가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이 반응합니다.

고민에 대한 답변 대신 뜬금없이 웬 여행 이야기냐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 반드시! 이성을 만나서 사귀겠어!'의 자세를 취한 사람은 어떻게든 티가 나고 절박해 보이는데, 그럼 매력이 푹 떨어집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유난히 이글이글 절박한 출연자가 있기 마련인데,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대신 준비해 온 멘트를 던질 틈을 노리느라 얼굴이 잔뜩 굳어져 있다거나 하는 경우 말이에요. 시청자가 모를 거라 생각하겠지만, 딱 보면 티가 납니다. 부담스럽고 재미없죠.

낯선 근무지의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선생님은 분명히 꽤 괜찮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동료 외의 사람과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나요? 이성 말고, 사람요. SNS나 블로그 운영, 동호회 모임을 하나요? 온라인의 다양한 소모임을 예로 든다면, 보통은 하나의 큰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모였으니 그에 대해 글을 올리고 댓글도 주고받겠죠. 그렇게 모임 안에서 조금씩 존재감을 보이다가,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질 겁니다. 만나서도, 급할 거 있나요.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며 친해지는 거죠. 그런데, 같은 자리라도 이성을 만나겠다는 목적을 품고서 나가면 역시 티가 납니다. '난! 여자를! 찾으러 왔어!'인 사람은 환영받기 어려워요. 선이나 소개팅 자리가 아니고서야, 말이 잘 통하는 편만한 사람이나 그의 성별보다 우선하니까요.

괜찮은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가 이성이라면 슬슬 체크해봅니다. 우리는 30분 정도는 사심 없이(혹은 사심 있는 티 내지 않고)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낯서 이야기든,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 이야기든, 뭐든지요. 최근에 이성과 나눈 카톡 대화를

떠올려 봅니다. 그와 나는 탁구 치듯 핑퐁핑퐁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혹은 한쪽의 일방적인 대화였는지 복기해 보는 거죠. 일상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졌는지, 아니면 소소한 대화에 집중하는 대신 '그래서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에만 신경 썼는지 말이에요.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을 즐기며 걷는 사람과, 최단 거리를 검색해 냅다 달려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편, 보내주신 이야기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외모와 스타일 관리를 권했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정말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성을 만나고 싶은가요? 괜찮은 사람, 매력 있는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보통은, 괜찮고 매력 있으며 대화를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이성을 만납니다. 그러니, 나를 먼저 정비해야 합니다. 이성뿐 아니라 사람 전반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요. 파이팅입니다.



### <참여 방법>



고민 상담 신청은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또는 QR코드 응모 페이지로 발송합니다. 이름과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말고 고민만 작성해 보내주세요.







맛있는 새해의 시작  
 요리초보도 간편하게 만드는  
 떡만둣국

평소 요리에 전혀 흥미가 없는 사람이라 해도 새해가 되면 어쩐지 내 손으로 한 번 끓여보고 싶은 메뉴가 떡만둣국이다. 마트에서 사온 떡 조금, 만두 몇 개와 간을 맞추는 기본 조미료만 있으면 따끈한 떡만둣국을 완성시킬 수 있다. 직접 끓인 한 그릇으로 새해를 맛있게 시작해보자.

재료(2인분)



떡국 떡 300g, 만두 8개, 계란 1개, 대파 1대, 다시마 한 조각, 멸치 한줌,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1큰술, 소금·후춧가루·김가루 약간, 물 1L  
 \*다시마나 멸치가 없을 때는 시판용 육수를 쓰면 간편하다.

조리 순서

- 1 떡국 떡은 미지근한 물에서 20여 분간 불린 뒤 건져 물기를 뺀다.
- 2 냄비에 물과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7~8분 정도 끓여 육수를 만든 뒤 건더기는 건져 낸다.  
\* 시판용 육수는 1회 사용 분량으로 포장된 제품이 시중에 다양하게 나와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자.
- 3 끓는 육수에 떡과 만두를 넣고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 4 떡과 만두가 동동 떠오르면 적당한 크기로 자른 파와 다진 마늘을 넣는다.
- 5 마지막으로 취향에 따라 계란을 풀어 붓고 한번 더 끓으면 후춧가루를 넣고 마무리 한다.
- 6 좋아하는 그릇에 옮겨 담고 김가루를 뿌리면 끝!

Tip

조금 더 보기 좋은 떡만둣국을 원한다면?  
 고명으로 달걀 지단을 올려보자.

1. 달걀을 젓가락으로 잘 저어 푼다.
2.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키친타월로 코팅하듯 닦는다.
3. 약한 불에서 달걀물을 부어 고르게 펼친다.
4. 달걀 색깔이 불투명해지면 달걀 밑으로 나무젓가락을 집어넣고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 한 번에 뒤집는다.
5. 15초 가량 더 익히고 꺼낸다.
6. 완전히 식힌 후 가지런하게 썰어 떡만둣국 위에 올리면 완성!





#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

## 기억해야 할 요소들

심없이 우리 몸을 돌고 있는 혈액. 그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혈액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혈액세포들

손 끝, 발 끝까지 신체 구석구석에 산소와 각종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혈액의 역할이다.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주인공도 혈액이다. 간혹 몸이 붓거나 손이 저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한지 의심해볼 수 있다. 혈관을 통해 이동해야 할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뇌출혈, 뇌졸중, 심근경색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커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혈액은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 세포성분이 약 4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혈장이라는 액체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혈장에는 단백질이나 이온, 무기질 등이 녹아 있어 담황색을 띠는데 체온 유지와 노폐물 운반에도 큰 역할을 한다.

적혈구는 혈액세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적혈구에 함유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이동시키고, 이산화탄소와는 결합해 배출시키는데 약 100간 몸을 순환하면서 기능을 하고 나면 파괴된다.

백혈구는 감염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계 세포다.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총 혈액량의 약 1%가 백혈구로 채워져 있다. 건강상태에 따라 그 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상한치를 초과하면 백혈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 하한치보다 감소하면 면역체계의 악화를 가져온다.

혈소판은 몸 어딘가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지혈 작용에 나서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데 필수인 세포다.



혈액은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 세포성분이 약 4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혈장이라는 액체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혈장에는 단백질이나 이온, 무기질 등이 녹아 있어 담황색을 띠는데 체온 유지와 노폐물 운반에도 큰 역할을 한다.

### 기본을 잘 지키면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제 몫을 하고 있는 혈액세포들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소임을 다 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다. 모두들 알고 있지만 쉽사리 실천하기 어려운 금연과 금주, 매일 20분 썩의 가벼운 운동이다.

새해를 기념해서라도 음주나 흡연 횟수를 줄여보자. 일반적으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적혈구와 백혈구 수치가 높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유종하 교수의 자문에 따르면 담배연기 속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그 기능을 방해하고 보상작용으로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진다. 흡연에 의한 기관지 염증반응에 의해 혈액 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 혈류이상이나 혈관손상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이 분비될 수 있다.

평소 물을 충분히 마셔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 내 노폐물이 과다하게 쌓이는 것을 방지하자. 업무를 하면서 자리를 벗어나 움직이는 일이 적다면 일부러 움직이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책상 밑으로 발목 움직이기를 반복하고 일상적으로 걷기를 실천하자.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며, 그 중에서도 걷기는 가장 부담이 적은 운동법이다.



## 교정시설이 궁금한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 울산구치소 보라미 준법교실 및 시설참관

평범한 사람들은 가끔 미디어를 통해 구치소의 생활과 교도관의 모습을 엿보곤 한다. 대부분 극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실제와 얼마나 가까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울산구치소는 학생들에게 기관을 소개하고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라미 준법교실 및 시설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천상중학교 1학년 학생 20여 명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울산구치소를 찾았다.

#### 구치소는 무서운 곳?

많은 사람이 교정 시설에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울산 구치소 직원들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참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 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꿈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구치소로 초대해 기관을 소개하고, 준법 강의를 할 뿐 아니라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난 12월에는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천상중학교에서 20여 명의 학생을 초대해 '보라미 준법교실 및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아침부터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울산구치소 대회의실에 모였다. 기관 소개 및 보안교육을 위해 황정목 교사가 강단에 올라 인사하자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한곳으로 모였다. 구치소가 어떤 곳인지,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정보가 없기에 학생들의 호기심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학생들 앞에 선 황정목 교사





의 질문이 쏟아지자 여기저기서 우렁찬 대답 소리가 들려왔다. “맞아요,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 가는 곳이고, 구치소는 아직 형을 확정받지 못한, 재판을 앞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을 수용자라고 해요.” 황정목 교사가 학생들에게 적합한 용어를 설명하며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이어 오늘 참관할 시설을 간단히 소개하고 덧붙여 참관 시 주의할 점을 학생들에게 당부한 후, 시설 참관을 위해 자리를 이동했다.



### 호기심 가득, 구치소 시설 참관

이번 참관 코스는 출입구인 보안 정문을 통과해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제1수용동'과 '취사장'을 둘러본 후 밖으로 나가 '민원봉사실'까지 참관한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교도소 내부를 엿보는 했지만, 여전히 외부인들에게 교도소나 구치소는 낯선 장소일 수밖에 없다. 천상중학교 학생들도 평소 TV를 통해 봤던 구치소의 모습이 실제와 똑같은지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었다.



먼저 신원을 확인하고 금속 재질의 물건을 탐지하는 보안 정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뒤 좁은 복도를 지나 수용동으로 향했다. 학생들은 수용자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작은 방에 직접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고는 '몇 명이 함께 생활하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자는지' 사소한 것들까지 이것저것 질문하기 시작했다. 교도관들은 학생들의 질문에 차근차근 답을 한 뒤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이 직접 취사를 하는 '취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어떻게 식사가 준비되고 배식 되는지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쪽 벽에는 수용자들의 일주일 식단표가 붙어 있고, 실제 수용자들에게 배식되는 시스템도 엿볼 수 있어 구치소 내 식사 시간을 떠올려 볼 수 있었다.

모든 참관이 끝난 뒤에는 외부로 연결된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정문은 수용자들이 유일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차량통행로다. 수용자들이 몰래 탈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CCTV가 설치돼 철저히 보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바닥에 설치된 CCTV 위를 오가는 자신의 모습이 카메라에 정확히 찍히는 걸 확인하고는 보안이 정말 철저하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마지막으로 접견과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봉사실'로 이동해 둘러보고 접견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설 참관을 마무리했다.

### 미니인터뷰

울산구치소 **황정목** 교사



요즘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준법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시설을 참관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꿈을 심어준 것 같아서 무척 보람 있는 하루였어요.

울산구치소 **김호익** 교사



학생들이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저희 기동순찰팀이 보호장비를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돕고 있는데요.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막연히 힘들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라고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저희의 보람을 설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어서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국민들이 교정시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의 교도관을 꿈꾸며

참관을 마친 학생들이 다시 대회의장으로 돌아오자 '직업체험, 교도관 JOB아라!'라는 주제로 진로체험 및 준법교실이 진행됐다.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보면서 준법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시간이다. 황정목 교사는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시를 통해 작은 사건이 큰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다양한 미디어 영상을 통해 평소 법과 도덕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기동순찰팀의 안내에 따라 교도관이 사용하는 다양한 보호 장비를 직접 착용하고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수용자들을 결박하는 벨트형 포



승과 수갑, 자해를 막기 위한 머리 보호 장비와 발목 보호 장비, 수용자들로부터 교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교도봉과 가스충 등 평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장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사용해볼 수 있어서 학생들의 관심이 대단했다. 끝으로 교육실 뒤에 비치된 제복과 수용복을 입고 친구들과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구치소 방문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구치소 시설 참관을 통해 천상중학교 학생들은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이 체험이 계기가 되어 훗날 멋진 교도관이 탄생되길 기대해본다.

천상중학교 **김지은** 선생님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을 위해 울산구치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했는데, 학생들이 특히 이번 교도관 체험에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요즘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답을 잘 못하는데요. 이번 체험을 통해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새롭게 알고 진로 탐색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상중학교 **김세은** 학생



교도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따뜻한 분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26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던 수용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운 교도관의 사례를 듣고 무척 감동받았어요. 수용자들이 사회에 복귀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교도관님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TV에서 아름다운 설산을 걷는 트래커들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다가 “맞다! 우리 저기 가기로 했었잖아!”라고 아내와 함께 외치고 바로 비행기표를 사버렸습니다. 네팔 히말라야행 티켓입니다. 항공권을 끊은 것으로 트래킹 준비는 90%가 끝난 셈이니 용기와 의지가 충만해집니다.

아내는 6년 전 히말라야 푼힐 코스를 다녀와서 이번에는 더 높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ABC(Annapurna Base Camp, 4130m) 코스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정복한 8000m급 고봉인 안나푸르나 1봉을 비롯해 안나푸르나 연봉과 세계 3대 미봉이자 신성한 산이라 하여 등산이 불가한 마차푸차레를 감상할 수 있는 히말라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코스입니다.

저희는 2019년 11월 3일에 출국해 17일에 돌아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구름 없는 안나푸르나와 마차푸차레를 눈에 담고 왔습니다. 한 주 전에 가신 분들은 구름이 걷히지 않아 설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 운도 따라야 하나 봅니다.

네팔 카트만두 공항은 규모가 작지만 대합실 안에 들어서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세계인들로 가득한 모습에 넋이 나갑니다. 네팔은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여행이 가능한, 관광이 주 수입원인 국가입니다. 덕분에 관광객을

상대로 한 범좌는 0에 가깝고 그만큼 법이 엄격합니다. 그만큼 치안이 좋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다음날 경비행기로 안나푸르나를 품은 도시, 포카라에 도착해 현지 에이전트와 사전 미팅을 했습니다. 트래킹을 위한 Tims(Trekker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트래킹 중 소재 파악 및 보험처리 목적)&permit(국립공원 입산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고 나서 트래킹 경로를 함께 정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1월 6일 동이 트기도 전에 첫 목적지인 마쿠로 향했습니다. 7일간의 트래킹은 어렵지 않고 매 순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산 아래는 여름처럼 덥지만 중턱을 넘어서면 낙엽이 지고 정상이 보일 때쯤엔 눈발이 날렸습니다. 설산의 빙하가 녹아 흐르는 강물과 곳곳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끼고 걷다가 잡힐 듯 가까이 있는 설산의 절경에 감동했습니다. 길을 가다 만나는 각지에서 온 트래커들과 네팔인들과는 ‘Namaste(나마스떼)’라고 인사하면 모두 같은 인사로 밝게 화답합니다. 핸드폰을 끄고 산행을 하는 내내 눈, 머리 그리고 가슴이 맑아짐을 느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내내 복잡함, 근심, 걱정은 없었습니다.

코스의 난도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산행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고



길을 가다 만나는 각지에서 온 트래커들과 네팔인들과는 ‘Namaste(나마스떼)’라고 인사하면 모두 같은 인사로 밝게 화답합니다.

산병은 주의해야 합니다. 3000m 이상에 도달하면 하루에 고도 300~500m 이상 오르면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소변량이 늘고, 수면 중 자주 깨며, 숨이 가빠지다 심하면 탈수증과 무기력감, 현기증, 불면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가슴이 뻑뻑해서 기침이 나고 구토증세와 함께 기력 없이 언어 구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바로 하산해야 합니다. 더 오르다간 뇌부종과 폐수종 등으로 번져 심각한 상황으로 구조용 헬기가 출동하는 경우가 생길 테니 말이죠. 하지만 산행 중 뛰거나 경쟁심에 속도를 내지만 않는다면 히말라야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는 무려 두 명의 한국 산악인 추모비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계 최초로 산악그랜드슬램(8000m고봉 14좌+7대륙 최고봉+북극점+남극점+에베레스트)를 달성하고 안나푸르나에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다 실종된 박영석 대장의 것, 다른 하나는 에베레스트 원정대 대장으로 그 정상을 밟고 이후 안나푸르나 등반에서 엄홍길 대장과 정상을 찍고 내려오다 실종된 지현옥 대장의 것입니다. 비석을 바라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교정직 공무원들의 인상이 어둡고 무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용자들을 매일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모양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말과

행동이 거칠어진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겪고 수면장애까지 와서 한동안 씩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를 생각해서 아내가 이곳으로 저를 인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곳에 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의 산장에서 침낭을 덮고 자다가 잠이 오지 않아 아내와 함께 새벽에 나갔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헤아릴 수 없는 별과 LED같이 밝은 보름달, 구름이 완전히 걷힌 설산을 마주하고 절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밤을 꼬박 새우고 일출까지 다 보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잠을 잤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와 2주간 휴가를 내고 여행을 해본 건 처음입니다. 오랜만에 일터에 돌아와보니 지치고 힘들어하는 동료들이 많이 보여 얘기해줍니다. “티켓을 먼저 사세요. 그리고 그날 무조건 떠나세요.”

교정인들의 숨겨진 자량을 도와드립니다. 수필, 시, 사진, 그림, 서예, 공예 등 어떤 작품이든 OK! 교정인의 작품이라면 무엇이든 보여주세요. 작품과 짧은 설명을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 보내시면 다음 호에 실어드립니다.



# 용서를 생각합니다

'희망의 백일장'은 수용자들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출소 후 떳떳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참회와 교화의 시간을 거쳐 사회로 돌아갈 수용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MAKE HOPE

구치소에서 용서에 관한 주제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용서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26년을 살면서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군요. 용서 해본 적도 구한 적도 없었기에 용서란 단어만 알고 있을 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에 계신 분들에게 '용서'가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개인마다 용서에 대한 기준과 의견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하시는 분들 또한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들도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혼자 용서에 대해 생각해보니 많은 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드는 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용서를 구한다는 건가, 생각을 해 봅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 한 번으로 이렇게 용서를 구할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나의 잘못된 행동 한 번이 아니면 용서를 구할 일이 없었겠다는 생각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의 무게감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올해로 26세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저 자신을 되돌아 봤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왜 나의 봄날은 오지 않을까. 또래보다 튀어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앞서나가고 싶은 허황된 마음에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정작 왜 나는 진짜 성공과 노력에 가치를 두지 않았을까, '나는 눈을 뜨고 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구나!'라고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미련과 후회만 남는지 사람이라 그렇다고 하기에는 잘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나는 원래 이래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라고 하기에는 남은 나의 인생이 너무 아깝고 무서워서 그러지 못하겠더군요.

가족들이 평택과 인천에 삽니다. 그곳에서 이곳 의왕시까지 저를 보러 오시는데 처음 부모님과 면회를 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말로 형용하지 못할 감정이 들더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건 정말 사람이 할 것이 못 된다'였습니다. 불효도 정말 이런 불효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용서를 구하는 기준과 잣대는 모두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아니 뎨 굴뚝에 연기날 일 없다고,

이번 계기를 전환점 삼아서 더 나은 삶을 산다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고 합리적일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곳은 처음일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이곳에 들어오면 두렵고, 무섭고, 막연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땅을 발견하듯,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이번 계기를 전환점 삼아서 더 나은 삶을 산다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재판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결과가 저에게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내의 방에서 성장해서 사회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용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되돌아보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겠죠. 나로 인해 생기는 잘못이기에 결국은 나를 용서해야 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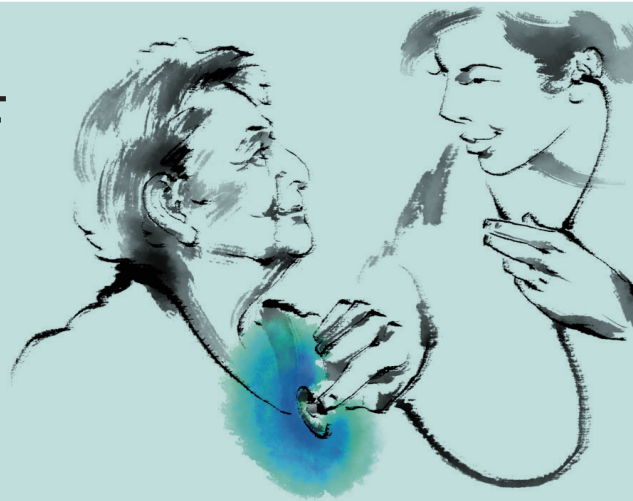
이렇게 생각해보고 글을 써본 것만으로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어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교정의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上)\*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 I. 들어가는 말
- II. 교정의료 현황
- III. 주요 업무사항
- IV. 실제 환자 사례
- V. 쟁점 현안
- VI. 맺음말



\* 교정연구 제29권 제4호 통권 제85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접수일(2019. 12. 1.) 심사일(2019. 12. 18.) 수정일(2019. 12. 24.) 게재확정일(2019. 12. 26.)

###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일개 기관의 사례를 들어 교정의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설명하였다. 국가는 수용자의 보건지도를 책임져야 하고,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지도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보건지도를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자의 인권향상 분위기와 더불어 수용밀도의 증가, 수용자의 고령화, 교정시설 내 환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의료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처하고자 교정의료는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은 물론 교정공무원들까지도 수용자 의료처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환자가 외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거나, 입원 환자가 다수로 늘어나게 되면 계호직원의 부족을 초래하여 연쇄적으로 교정의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은 첫째, 중증 환자는 가급적 빨리 출소시키는 것이다. 공정한 원칙을 기반으로 형집행정지제도, 치료목적의 귀류제도, 가석방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의 변화와 개발을 통해 교정의료의 질

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원이 충분히 늘어난 때까지는 전 직원들의 고통분담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 환자 계호에 가까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정의료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교정의료, 교정의료의 질, 외부진료, 계호인력, 집행정지

## I. 교정의료 현황

### 1. 교정시설 내 환자 추이

구금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래서 신체 면역력을 약화시켜 잠재되어 있던 질병을 급성으로 악화시키기도 한다. 더불어 수용밀도의 증가, 고령화, 생활 습관병의 유병률 증가 등은 교정시설 내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수용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보면 질환 의심자 비율은 2008년 27.8%에서 2017년 70.6%로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1>. 법무부 교정본부, (2018b), p.90-91.

<표 1> 질환 의심자 및 환자 수(2008~2017)

(단위: 명)

연도	질환 의심자	실제 환자수
2008	8,383(27.8)	9,255
2009	11,316(35.8)	10,654
2010	13,831(42.4)	11,815
2011	19,516(59.4)	14,664
2012	19,569(60.9)	17,408
2013	21,972(64.2)	19,668
2014	23,914(66.5)	22,971
2015	25,472(65.4)	24,238
2016	28,792(70.0)	24,226
2017	29,508(70.6)	23,196

주) 괄호는 전체 수용자대비 비율(2018 교정통계연보 재구성)

수용 생활 동안 영양섭취는 충분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활동량으로 인해 비만을 비롯한 대사증후군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내에서 약물을 복용하며 실제로 치료 중인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등 만성 질환자 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교정본부는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일 평균 환자 수가 63%까지 급증하여 같은 기간 수용인원 증가율(19.6%)을 크게 상회하였고, 수용 환자 발생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 수요 대치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법무부 의료과, (2018),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방안'.

### 2.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

구금이라는 환경은 수용자의 몸과 정신을 불안정하게 변화시킨다. 감정적 고통에 대해 성숙한 방어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정신적인 퇴행에 빠지거나 뇌가 고통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신체 증상에 주목하게 된다. 무의식의 과정에 의해 비특이적인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 설혹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다른 신체 증상으로 모습만 바뀌어 나타나고는 한다. 일상생활의 답답함, 수용자 간 불화, 직원과의 마찰, 기분 전환 등이 의료화가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비 의료적인 문제가 의료화가 되는 교정시설 특유의 흔한 현상이다. 그래서 수용자들은 의료 이용 빈도가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높다.

<표 2>는 2009년~2016년 1년간 교정시설 내 진료 누계와 1인당 진료횟수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교정시설 내 진료 인원

(단위: 건)

연도	1일 평균 수용인원	교정시설 내 진료 인원	
		1년 누계	1인당 진료횟수
2009	48,739	2,136,658	43.8
2010	48,512	2,220,284	45.8
2011	44,941	2,496,485	55.6
2012	46,621	2,452,740	52.6
2013	48,821	2,904,326	59.5
2014	51,770	3,329,682	64.3
2015	54,581	3,772,931	69.1
2016	57,473	3,963,774	69.0

주) 형사정책연구원, 2017, 89면 재구성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진찰건수는 1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다(보건복지부, 2018b, 10). 이와 비교하여 수용자는 1인당 진료횟수가 1년에 69회에 달한다(<표2>참조). 이처럼 일반 국민과 수용자의 1인당 연간 진료횟수를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 3. 외부의료시설 진료 건수

교정시설 내 진료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외부 의료 시설 진료 건수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3>). 교정의료의 질적 향상과 원격 화상 진료 및 초빙진료의 활성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환자 계호인력의 한계는 외부진료 인원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효과로 작용한다.

<표 3> 외부의료시설 진료건수<sup>4)</sup>

(단위: 건)

연도	외부의료시설 진료건수	진료건수 증감률 (08년 기준)
2008	37,128	100%
2009	28,765	77%
2010	27,525	74%
2011	26,046	70%
2012	26,333	71%
2013	27,363	74%
2014	30,302	82%
2015	32,231	87%
2016	34,709	93%
2017	37,403	101%

4) 법무부 교정본부, (2018b), p.95.



#### 4. 입원 환자의 증가

입원 환자가 늘었다는 것은 중증 질환이 있는 수용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자의 수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주요 원인이다. 수용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4.03%이던 것이 2019년 5.21일을 기준으로 12.47%까지 높아졌다 법무부 의료과, 2019.7. 내부자료.

일반 국민의 악성종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유병률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가파르게 높아진다. 수용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용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가짓수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2018년 기준으로 1905명의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한 일수를 합하면 총 11,771일에 달한다. 여기에 투입된 계호직원은 80,128명이었다. 2013년 이후 전체 직원 수는 변동이 미미한데 비해 입원건수와 투입된 계호 직원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표 4).

법무부 교정본부, 2019.5. 내부자료.

〈표 4〉 전국 외과의료시설 입원건수 및 계호인원 현황 (단위: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원인원	15,973	15,984	15,887	15,841	15,871	16,102
입원건수	1,412	1,645	1,737	1,807	1,970	1,905
계호인원	56,216	59,017	67,784	71,590	76,032	80,128

## II. 의료과 주요업무

### 1. 환자 선별과 분류

수용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래서 사소한 신체 증상에도 무슨 큰 병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는다. 정밀검사로 병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단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에도 위암이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약물복용으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의무관들은 환자의 나이, 위장관 증상을 호소한 기간, 혈액검사, 체중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환자의 나이가 많고 최근 급속한 체중 감

소가 동반되었다면 외부진료를 원치 않더라도 주저함 없이 외진을 권유하게 된다. 나이가 젊고 입소 후에 체중이 오히려 늘었다면 약물치료를 먼저 권유하게 되고 설사 자비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하더라도 다른 급한 환자들보다 후순위로 외진을 미루게 된다. 이처럼 응급 질환과 비응급 질환을 구분하고 상급병원으로의 진료의뢰 필요성을 판단한다. 질병의 경중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환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질병은 그 심한 정도에 따라 편의상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단계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병, 2 단계는 간단한 수술이나 의료인의 상담이 필요한 병, 3 단계는 단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병, 4 단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세가 악화되고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표 5). 앞의 1, 2 단계는 교정시설 내 일차 의료시설 수준에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3, 4단계의 질병들은 상급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해야 한다. 같은 단계에 속하는 질병이라도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성 충수돌기 염은 복막염으로 진행하기 전에 가급적 빨리 24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하지만, 골절환자의 경우 일단 부목고정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수술 여부는 경과를 보가며 천천히 결정해도 되는 것이다.

〈표 5〉 질병의 심한 정도

	예시	치료 주체
1단계	자연치유가 가능한 병, 예) 감기, 찰과상 등	시설 내 진료
2단계	간단한 수술이나 상담이 필요한 병, 예) 열상, 농양	시설 내 진료
3단계	단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병, 예) 골절, 탈장, 충수염	외부 병원
4단계	장기적인 입원과 치료를 요하는 병, 예) 암, 뇌경색	외부 병원

외부진료 후 환자가 갖게 되는 심리적 안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치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증상 완화로 이어지게 하는 이점이 있다. 외부병원 진료가 불가능한 폐쇄적 환경은 수용자들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부로 나가고 싶어 안달 나게 하는 상황이 된다. 열린 공간이 되는 순간 외진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감소한다.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는 수용질서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준다. 그래서 심인성 질환이나 1, 2 단계에 속하는 경중 질환을 가진 수용자

도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진료가 허용이 되기도 한다.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우선순위에 따라 질서 있는 외진을 보내는 것은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이라는 측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 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고통이 감소한다. 몸이 아픈 수용자는 자신이 왜 아픈지 모를 때 불안하게 되고 그 불안한 상태는 통증을 더욱 악화시킨다. 정밀검사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통증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충분히 참을 수 있는 통증이 된다.
- ②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는 의료소송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③ 각종 진정이나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④ 선제적인 외진은 야간, 공휴일의 응급환자 발생을 예방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부진료를 나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된다. 교정시설의 규모와 직원 수에 따라 하루에 외부진료를 나갈 수 있는 환자 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청이 허가되지 않거나 허가가 되었더라도 오랜 시간 기다림을 감수해야 한다. 교정본부 의료과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 2018.1.25~2018.2.9. 3주간에 걸쳐 52개 기관 수용자 5707명(수용인원의 10.4%)을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6%가 외부진료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교정본부 의료과, 2018.2. 내부자료.

대부분이 증상이 경미하여 외부진료가 불필요하다는 의무관의 판단 때문이었다. 허가가 되었더라도 20%는 1개월이 지나서야 외부진료를 나갈 수 있었다.

2017년 형사정책연구원이 26개 기관 수용자 2083명을 군집 분석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27.7%(578명)가 외부진료를 받기를 희망하였으나 거부되었고, 37.2%(외부진료를 경험한 686명 중 255명)는 설사 허가가 되었더라도 2주 이상을 기다린 후에야 나갈 수 있었다.

형사정책연구원, 2017, p.161-162, p.202.

### 2. 의료자원의 분배와 조율

외부진료를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일, 외부병원 진료비를 수용자 개인에게 부담시키거나 혹은 국가비용으로 지불하게 하는 일, 치료거실이나 의료거실에 수용할 환자를 선정하는 일 등이 의료자원을 분배하는 일이다. 외부진료를 나가게 되면 시설 내

에서 이루어지는 무료진료와 달리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의무관과 수용자 간 치료비 주체에 관한 견해 차이로 마찰이 일 때가 있다. 의무관은 흔히 외부진료 비용은 수용자에게 지비 원칙임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는 의료예산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일정 부분 경제적 비용을 들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외부진료를 줄여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일종의 “문턱효과”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정말로 외부진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더라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추가적인 정밀검사나 외부병원 의뢰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치료와 검사비용을 자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비로 할 것인지도 의무관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수용자가 외부진료를 원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허가가 되었더라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수용자가 의료거실에 수용되기를 원하였으나 의무관은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의사를 치료자가 아닌 공권력의 일부로 여기기 쉽다. 외부진료가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후송될 순서를 결정할 차례다. 환자가 외부진료를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후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서를 잘 정해 주어야 한다. 입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입원환자 한 명당 야간에 필요한 계호직원이 6명이므로 직원의 배치 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즉 동시에 입원 가능한 환자의 숫자가 한정되기 때문에 환자의 입원 시기와 입원 순서를 잘 조절해 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시로 보안과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의사결정권자의 승인 또한 받아야 한다. 이처럼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일은 정의와 관련된 문제이다. 의무관은 공정한 원칙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분배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다음의 글은 실제로 있었던 일상을 기록한 일기형식의 글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수용 규모와 인력 상황은 2019년 6월 3일 기준으로 수용인원은 1234명이고 직원 정원은 300명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하루 두 명까지 입원을 시킬 수 있다. 세 명까지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일이다. 외부진료를 나가는 숫자는 통상적으로 오전 1명, 오후 1명이다. 하지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루 세 명까지도 가능하다. 평소에 하루 2명으로 외부진료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응급환자 발생을 미리 대비해두기 위함이다. 하루의 일과 기록을 통해 교정의료가 원활한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오늘은 위암이 재발한 환자 U를 10일간 D대학병원에 입원시켜 정밀검사를 진행하기로 예약된 날이다. 이 환자는 마약사범으로 2018.3.20~2022.3.21까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019.6.20. 위암의 대장전이로 인한 병기 4기 진단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2019.6.26. 임검이 실시되었고 2019.7.8. 형집행정지 심의회에서 허가가 결정되어 출소하였다. 그런데 석방된 바로 다음날 거주지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집행정지가 취소되는 바람에 2019.7.11. 재입소하였다. 2019.9.1. 입원하여 인공항문 수술을 받았다. 9.26.부터 1차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기대여명이 6개월~12개월이란 진단을 받았다. 3주 간격으로 외부병원에 후송하여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다.

어제는 의료거실에 수용된 만성 신부전환자 L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응급으로 D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이미 입원한 상태이다. D대학병원에 입원환자가 벌써 두 명이 되었다. 문제는 세 번째 환자 J로 70세의 고령의 수용자다. J는 삼일 전 C병원에 외부진료를 나갔는데 담당의사의 말이 담석과 담관에 결석이 함께 동반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입원해서 결석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을 요하지는 않지만 수술이 지연될 경우 언제든지 복막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그런데 이 환자까지 입원을 하게 되면 세 명이 입원하게 된다. 이미 D대학병원에 따로 입원해 있는 두 명의 환자를 2인 1실로 묶는다는 조건 하에 담관 결석 환자를 입원 시키기로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D대학병원에 2인 1실 병실 자리가 오늘은 없다는 것이다. 2인 1실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시술이 지연될 경우 복막염이나 폐혈증이 생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고하고 나서야 마침내 소장의 입원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오후에 보안과 실무자 한 명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세 명을 입원시키면 보안직원 배치가 도저히 안 된다는 하소연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일과가 끝나갈 무렵 거실 철문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왔다. 엑스레이 촬영결과 3번째 중수골에 분쇄골절이 보였다. 정형외과 병원에 외진을 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면 환자를 입원시켜서 수술을 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기브스를 시행하고 한 달간 경과를 지켜보는 차선의 치료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수술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골극장애 같은 후유증이 생길 우려는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이 환자는 이후 3회에 걸쳐 추궁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6주가 지나도 뼈가 붙지 않아 결국 1박2일간(2019.7.30~2019.7.31)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2019년 6월 4일  
화요일

오늘은 수용자 종합검진 두 번째 날이다. 아침 8시에 출근하니 의료과 직원 전원이 일찍부터 출근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제는 종합검진 장에 보안과 직원 두 명이 배치되었으나 오늘은 지원되는 직원이 아예 없다고 부서원 한 명이 불멘소리를 한다. 세 명의 입원 환자로 인한 여파임이 분명하다. 사무를 보는 직원 한 명만을 사무실에 남겨둔 채 의료과 전 직원이 출동하여 구백여명에 달하는 수용자 종합검진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D대학병원에 2인실이 나와서 두 명의 수용자를 한 병실로 묶을 수 있게 되었다. 한 명이라도 계호직원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입원환자가 모두 퇴원하여 한시름 놓았다 싶었는데 새로운 두 명의 신경 쓰이는 환자가 생겼다. 한 명은 75세 환자 N이다. 6월 19일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총 9일간 입원하여 치료받고 6월 28일 퇴원하였다.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은 하였으나 현재 대소변을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고, 혼거실 수용자들이 부족을 하여 화장실 번기에 앉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거기다 앞으로 월, 수, 금 주 3회 혈액 투석을 위해 외부병원 후송 진료도 필요하다.

이 환자는 8월 26일이 되어서야 혈액 투석실이 있는 타 교도소로 이송이 되었다.

다른 한 명은 6월 27일 H 교도소에서 온 82세 환자다. 우측 귀에 외이도 암이 있어서 이송 오기 전에 있던 기관에서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본 소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매일 총 30회의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 편의를 위해 보내온 것이다. 이 두 환자로 인해 최소 한 달 동안은 다른 수용자들이 외부진료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위 기록으로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직원 계호 사정에 맞추어 환자의 외부병원 진료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 외부병원으로의 후송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질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질병도 있다. 예를 들어 골절, 탈장, 자궁근종 환자처럼 수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급하지 않은 질환의 경우는 여유를 가지고 수술을 받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급성 충수돌기 염처럼 당장 입원하여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한 환자도 있다.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라도 되면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도 각오해야 한다. 계호 사정을 고려하여 환자가 발생할 리 만무하다. 불가피하게 입원 환자가 두 명이 발생하는 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윤번 휴무자를 불러내야 하고 사무직 근무 직원까지 동원해야 할 때도 있다. 직원 배치를 담당하는 팀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입원은 가급적 뒤로 연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게 된다. 보안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지고 수술연기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사전 예방을 위해 잠시 힘들더라도 세 명의 입원을 강행할 것인가? 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의료과장의 몫이다. 간부들은 설득했으나 실무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할 때가 많다. 그럴 때는 배치를 담당하는 직원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직원을 통해 들려온다. 갑작스럽게 계호직원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경우는 기관장뿐만 아니라 부서 실무자와도 소통을 통해 사정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식 개최



지난 1월 3일 법무부 지하대강당에서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본부 전 직원 및 법무연수원, 검찰청, 보호관찰기관,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출입국기관 인사 약 1,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취임식은 국민의례, 법무부장관 취임사, 인사교환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인권, 민생, 법치의 3대 원칙을 강조하며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함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법무가족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영월군 대체복무 교육원 신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영월군은 지난해 12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영월군 관내 대체복무 교육원 등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부와 영월군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원 등 건립의 성공적인 추진과 영월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법무부는 대체복무 교육원뿐만 아니라 생활관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2020년 대체복무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관련 토론회 개최

교정본부는 지난해 12월 6일 법무부 3층 회의실에서 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 전문가와 일선기관 실무자 간의 토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대학교 교정상담교육대학원 류창현 교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이용한 심리치료와 그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섭 교수는 중독 회복을 위한 외국의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된 의견은 활용 가능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수형자 심리치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교정본부 전 직원 어울림 마당 개최

교정본부는 지난해 12월 9일 안양시 소재 파티엘하우스에서 교정본부 직원 및 타 실국본부 지원 근무자 203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본부 전 직원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19년 교정본부의 발자취와 2020년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다짐을 담은 영상 상영, 단체게임, 만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되었다.



### 교회방송자문단 정기회의 개최

교정본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교회방송자문단 정기회의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강재형 위원장, 최강주 교정본부장 등 총 10명이 참석하였으며 교회방송 생방송 확대 실시 방안,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방안, 생방송 라디오 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교정시설 내 수용자 교회방송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교회방송자문단은 2008년 12월 22일 제1차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2회 실시되고 있다.



##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 청탁금지법 등 청렴 및 공직기강확립 교육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해 12월 16일 국민권의 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과 연말연시 공직 기강확립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정립하는 자리가 되었다.

서울구치소 / 교사 변무관

### 직원 정신 건강의 날 행사 개최

서울구치소는 지난해 12월 4일, 폐쇄된 교정시설에서 야간 근무 및 수용관리 업무 등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을 위해 '직원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현재 건강상태와 추후 건강 관리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했다.

안양교도소 / 교위 유승현

### 수용자 감사나눔 공모전 시상식 개최



안양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6일 안양교도소 대강당에서 감사나눔신문, SK텔레콤과 함께 수용자 감사나눔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 후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제공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수원구치소는 지난해 12월 20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교정 시설 내 또는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 국민체력 100 체력진단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9일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체력 진단을 실시하였다. 체력 측정 후에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운동습관 및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졌다.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 제29대 구지서 소장 취임식



인천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2일 제29대 구지서 인천구치소장의 취임식을 진행하였다. 구지서 소장은 전주교도소장, 의정부교도소장, 광주교도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 남부 보라미 어린이집 원아 선물 전달

서울남부구치소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난해 12월 20일 법무부 남부 보라미 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오홍균 소장 및 교정위원들은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나눠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유도교실 운영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유도교실 운영을 시작했다. 유도교실은 지역 사회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의 자녀들에게 스포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인성함양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자 마련됐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 경기북부지방법원 사회 도서 기증식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북부지

방법원사회로부터 교화용 도서를 기증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간 130여 권, 약 2백만 원 상당의 도서가 기증되었다. 기증된 도서는 수용자 교정교화 및 심성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여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2일 출소예정자 37명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현장 상담을 통한 현실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소예정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 서울탐초등학교 교직원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1일 서울탐초등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정행정의 방향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교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행사는 홍보 동영상 시청한 후 중앙통제실, 직업훈련공과 등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춘천교도소 / 교도 이건희

### 하반기 취업지원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춘천교도소는 지난해 12월 4일 2019년 하반기 취업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19년 수형자 취업 및 창업 지원 활동 등을 돌아보고, 출소자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 연말 직원표창장 수여식 개최



원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0일 올해의 자랑스러운 원주인, 제도개선활동 우수직원 등 2019년도에 적극적인 활동으로 교정행정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선정하여 직원표창장 수여식을 실시하였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 '수용자 자장면 데이' 행사 개최

강릉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7일 수용자들에게 자장면과 탕수육을 지급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강릉에서 중화요리점을 운영하는 모임 일우회와 강원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원봉사 모임 보탬에 연합이 강릉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영월교도소 / 교도 서주현

### 석정여자고등학교 학생 참관 행사 개최



영월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0일 석정여자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66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관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정 홍보 동영상 및 교정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치생활관, 복지관, 공동식당 등을 둘러보았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윤우리

### '2019 수용자 교정교화유공 교정위원 감사장 수여식'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난해 12월 10일 평택지소에서 '2019 수용자 교정교화유공 교정위원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교화 분야 이한범, 종교 분야 조현수(기독교) 등 총 6명의 교정위원에게 감사장 및 꽃다발을 수여하였다.

소망교도소 / 배현승

### 직원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돌봄' 세미나 개최

소망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1일 글로벌 NLP 코칭아카데미 대표 권중희 교수를 초청하여 정신건강 치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자신의 내면을 긍정적으로 살피는 힘과 뇌 언어 이해를 통한 동료의식 고취 등의 내용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최현철

### 이달의 모범교도관 포상식 및 격려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해 12월 23일 이달의 모범교도관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표창장 전달 후 모범교도관으로 선정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드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 미용봉사자 감사장 수여



대구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0일 지역의 미용 자원 봉사자 배병춘, 황우수 님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두 사람은 달서구 미용협회 소속으로 2011년부터 대구교도소와 인연을 맺어왔으며, 매주 대구교도소 여성팀을 직접 방문하여 여성 수용자의 헤어 컷트를 무료로 해왔다.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 수형자 창업교육 실시



부산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9일 부산구치소 세심터에서 '수형자 창업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남부센터 박기호 소장이 13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진용혁

### 진보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6일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청송군 진보면 소재 진보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재학생 20명에게 각각 2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지급하였다.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2008년 교정장학회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헌병전대 참관 행사 개최



창원교도소는 지난해 12월 5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헌병전대 소속 11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관인들은 교정현장을 직접 둘러봄으로써 변화하는 교정행정에 대해 이해하고 헌병전대 직무수행에 도움이 얻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 베트남 공안부 연수단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9일 베트남 공안부 연수단 참관을 실시하였다. 연수단은 이날 선진 교정행정 견학을 위해 부산교도소를 찾았다. 연수단은 중앙통제실, 종교관, 작업장 등 모든 참관 장소를 세밀하게 둘러봤다.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 학천초등학교 장학금 전달식



포항교도소는 지난해 12월 9일 학천초등학교 재학생 5명에게 각각 3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장학금은 포항교도소 직원들이 지역 사회와 함께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모금한 것으로,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 사회 꿈나무들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학생 참관

진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2일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들의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보여주고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되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광명재

### 승진 직원 임용 행사 개최



대구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0일 승진하는 직원 4명을 대상으로 승진 임용식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교위로 진급하는 직원이 대상으로, 계급장 및 임명장이 수여됐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 사랑나눔회 교정장학금 전달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2일 청송군 진보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직원들이 매월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장학금을 마련하여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안동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1일 풍산119소방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환자 등 구조·대피에 따른 행동절차와 조치 사항을 숙달하는 모의 훈련이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현

### 진보중학교 교정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8일 청송군 진보중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미래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하여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2일 직원교육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민동백

### 제2차 청렴캠페인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해 12월 6일 유관기관인 청송양수발전소를 견학하는 제2차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청송양수발전소는 2017년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와 인연을 맺고 매년 경북북부제3교도소와 상호 참관을 실시하였다.

울산구치소 / 교도 박준규

### 천상중학교 보라미 준법교실 및 참관 실시

천상중학교 교사 및 학생 49명은 지난해 12월 18일, 19일 2회에 걸쳐 울산에서 유일한 교정시설인 울산구치소를 참관하였다. 천상중학교 일행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수용동, 수용자 취사

장, 내부정문, 민원봉사실을 참관한 후 대회의실에서 보라미 준법교실 수업을 듣고 교도관 직업 체험을 하였다.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신

### 안보·통일 직원교육 실시

경주교도소는 지난해 11월 27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신난희 교수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통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남북한 통일정책과 교류, 분단체제 속의와 민주주의, 평화가 통일이다, 통일이 독립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통영구치소 / 교위 강구혁

### 12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실시

통영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8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통영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시동'을 관람했다. 이번 문화가 있는 날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행복 및 소통을 키워드로 소장 및 부서장을 포함한 27명이 영화관람 및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밀양구치소 / 교도 최상훈

### 부북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밀양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1일 관내 자매결연학교인 부북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 장소인 부북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우 관계가 좋은 어린이 5명에게 장학금 각 20만 원 및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 '달팽이 봉사단' 장학금 전달



상주교도소 '달팽이봉사단'은 지난해 12월 17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상주시 소재 상주중학교와 사벌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

##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정구완

### 박병용 대전지방교정청장 퇴임식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해 12월 30일 대전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제28대 박병용 대전지방교정청장의 퇴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퇴임식은 식별의 아쉬움과 인생 제2막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 재난훈련 실시

대전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0일 재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교정시설에서 화재 및 응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도주기도 대비 훈련을 병행한 복합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청주교도소 / 교위 박해양

### 수용자 자녀 돕기 '빨간컵 나눔행사'



청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2019 빨간컵 나눔행사'에 시각장애 수형자 및 고령 수형자 10명의 도에 작품을 전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천안교도소 / 교도 전인호

### 동절기 재난안전점검 및 합동소방훈련

천안교도소에서는 지난해 12월 2일, 2019년도 동절기 재난안전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천안교도소 직원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재난에 항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 청주여자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헤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공직자로서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 공직기강확립 직원 교육 실시



공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헤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의 확립과 예방적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충주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9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주제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체 제작한 교육 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및 성희롱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조경환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홍성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0일 개방작업장에서 홍성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에서 홍성소방서 소방관과 홍성교도소 직원 30여 명은 화재 상황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사 하대웅

### 스트레스 측정의 날 행사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해 12월 4일 직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스트레스 측정의 날을 마련했다. 스트레스, 혈관 건강도, 불면증 치료 등에 유용한 여러 테라피를 통하여 직원 심신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김승인

### 외부강사 초청 청렴교육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지난해 12월 3일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박광래 전문강사가 부정청탁의 유형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하였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 퇴직선배 직원 초청 참관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해 12월 17일 퇴직선배직원 5명을 초청하여 구내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논산지소를 방문한 선배직원들은 업무 현황 및 기관 운영사항을 시청하였으며,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논산지소의 발전을 기원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안동일

### 제33대 윤재홍 광주지방교정청장 퇴임식

광주지방교정청은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광주 지방합동청사 3층 세미나실에서 제33대 윤재홍 광주지방교정청장의 퇴임식을 거행하였다. 윤재홍 청장을 떠나보내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평안을 기원하였다.

광주교도소 / 교사 박승현

### 헌혈의 날 행사 통한 생명나눔 사랑의 실천에 동참

광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8일 헌액 부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혈액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협조하에 교도소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시행하였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 사랑애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전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3일 직원들이 기부한 성금으로 연탄 2,000장을 마련하여 전주교도소 인근 저소득 취약계층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사랑애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순천교도소 / 교사 이승현

### 전문 강사초빙 직원 청렴교육 실시



순천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일 소속기관 직원을 상대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형 강사를 초청해 청렴과 바람직한 공직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민선

### 동신대학교 지역사회 현장 전문가 특강



목포교도소는 지난해 12월 4일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현장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춘오 소장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의 확대에 따른 교정직의 진로와 전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 은혜와 감동의 사랑애 2019콘서트



군산교도소와 군산교도소 기독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2회 수용자 불우가족 돕기 '은혜와 감동의 사랑애 2019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 보라미 준법교실 시행

제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9일 제주 귀일중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시행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 형성과 교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장흥교도소는 지난해 12월 5일 장흥 회덕중학

교 교직원 및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실시하였다. 이날 보라미 준법교실은 교정행정 홍보 및 청소년 법질서 준수 의식향상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해남교도소 / 교도 이상문

### 교정행정 OX퀴즈 경연대회 개최

해남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일 직장 월례회를 실시하며, 업무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한 교정행정 OX퀴즈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최종 우승을 한 강준석 교사와 결선 진출 직원에게는 지역 발전에 일조 중인 해남사랑 상품권이 제공됐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 정읍여자고등학교 학생 참관 행사 실시

정읍교도소는 지난해 12월 20일 정읍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교정시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직업군으로서 교정직 공무원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교정공제회

### 교정공제회 신임 이사장 취임

교정공제회는 2020년 1월 1일부로 권민석 전 대전교도소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권민석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제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성이 높은 고수의 금융상품 발굴에 힘써 공제회원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그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국군교도소



### 교정의원 변상해 교수 연말연시 위문품 전달

국군교도소의 교정위원 변상해 교수(서울벤처대학교대학원 부총장)가 지난해 12월 26일 연말연시를 기념하여 수용자 정서순화를 위한 전자키보드 등 15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서울

### 수원구치소 교위 이말선



보안과 여성수용동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교정시설에 처음 입소하는 신입수용자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사회 격리에서 오는 막연한 불

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수용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적극적으로 통보하여 수용자들이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하도록 돕는 등 수용생활 안정화와 교정교회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

### 부산교도소 교위 백두현



보안과 야간 담당을 하면서 오랜 야간근무 중 피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서원과 화합하여 모든 업무에 솔선수범 하고, 수용자 개인

적인 고충이나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용자들에게 개인상담을 통한 심적 안정을 유도하여 원만한 수용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른바 문제수용자와 자매 결연을 맺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선도하며, 상담을 통하여 고충사항을 해소시켜 수용생활에 순응토록 해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에 이바지했다.

대전

### 공주교도소 교위 백성호



보안과 영선업무를 담당하면서 1동 하층 세면장을 환자용 목욕탕으로 개선하는 공사의 기간을 1주일 이상 단축하여 환절기 수용자

들이 온수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들 위생관리에 기여했다. 검도 동호회를 결성하여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교도관무도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동료들을 독려하는 등 직원회합에 기여했다.

광주

### 장흥교도소 교사 장정숙



총무과 서무업무 근무자로서 정보공개, 공무원증 및 봉급관리, 직원 상호회 운영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업무 처리로 교정행

정 발전에 기여했다. 장흥교도소 봉사단체 정남진 보라미 봉사단의 주무 담당자로서 각종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교정기관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힘썼다.



# Review

## 월간 <교정>과 함께해주세요

월간 <교정>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교양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2020년 1월호를 읽고 느끼신 소감, 참여하고 싶은 코너에 대한 의견을 엮서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12월호 독자 의견

- '파멸로 이끄는 욕망을 경계할 것' 칼럼을 읽고 인류 문학사의 백미로 불리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고 자기합리화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며, 욕망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직장인의 일과후나 주말, 휴일을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법들을 소개해 주세요.

박지영 독자님

## 월간 <교정> 웹진 OPEN!



월간 <교정>이 웹진으로도 발행됩니다. 1월 중 오픈될 웹진에서 다양한 선물이 주어지는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여 바랍니다. 월간 <교정>의 웹진 오픈에 대한 소식은 교정본부의 SNS에서 확인하세요.

잘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주의하고 있나요?를 읽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편에만 추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과오에 대한 반성과 회개에 인색해 다시 그런 행위가 재발되는 경우가 많음을 생각했습니다. 늘 실수나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와 신중함이 필요하며 후회와 잘못도 자주 되풀이되면 습성이 되므로 항상 조심해야겠지요.

우향화 독자님

송년호 <국민들이 교정공무원을 응원합니다>를 읽고 최근 들어 공직자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공헌활동을 강조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교정직 공직자들도 연말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인 독거노인이나 요보호 아동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따뜻하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네요.

이귀숙 독자님

### <교정>에 참여하기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셔서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당첨 소식을 안내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2020.1.1.시행

## 공공재정지급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 부정이익의 환수
-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 명단공표



# 함께할 교정인을 기다립니다

2020년의 추억 만들기는 월간 교정과 함께 하세요.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이벤트와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소원을  
말해봐

버킷리스트 속 한 줄, 월간 <교정>이 지워드립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교정이  
쏟다!

교정인과 자녀의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를 도와드릴게요.  
신청만 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정공무원의 고민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환영!

## 신청 방법



▲ 응모 바로가기

간단한 사연을 적어 월간 <교정> 엽서 또는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께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 신청 기한 없이 수시로 응모받습니다.

